



유성구 테크노 11로 일부 구간 환경방사선 2배 이상 높게 측정

도로포장시 사용되는 골재우리늄계열의 성분 함유 “지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서 블랙리스트 등 파일 9천여 건 발견”



유성구는 관내 일원에 대한 환경방사선 이동탐사를 실시하던 중 테크노 11로 일부 구간(약840m)에서 자연방사선량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측정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측정된 방사선은 B(비스무트:우라늄-238계열)의 자연방사선으로 예상되고, 도로 포장시 사용되는 골재에 우리늄계열의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지역을 전국 자연방사선량의 평균치(50nSv/h~300nSv/h)를 기준으로 환경방사선 측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이 과정에서 위 구간에서 자연방사선이 최고 470nSv/h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관평동 최근 5년 평균을(173nSv/h)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성구는 원자력 시설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6월부터 이동탐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측정결과를 공개해오고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최근 원자력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고조된 시기에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성을 가진 유관기관과 협의해 어느 정도 유해한지 확인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속하고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말했다. 앞으로 유성구는 아스콘 포장 전에 방사선을 측정하는 등 관내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도 계속 측정활동을 벌여 방사선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관 기자

“분류 작업 상당한 시일 필요”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서 파일 9천308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문서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며,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파일의 경우 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시 사용되는 골재에 우리늄계열의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지역을 전국 자연방사선량의 평균치(50nSv/h~300nSv/h)를 기준으로 환경방사선 측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이 과정에서 위 구간에서 자연방사선이 최고 470nSv/h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관평동 최근 5년 평균을(173nSv/h)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성구는 원자력 시설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6월부터 이동탐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측정결과를 공개해오고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최근 원자력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고조된 시기에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성을 가진 유관기관과 협의해 어느 정도 유해한지 확인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속하고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말했다. 앞으로 유성구는 아스콘 포장 전에 방사선을 측정하는 등 관내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도 계속 측정활동을 벌여 방사선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시 사용되는 골재에 우리늄계열의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지역을 전국 자연방사선량의 평균치(50nSv/h~300nSv/h)를 기준으로 환경방사선 측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이 과정에서 위 구간에서 자연방사선이 최고 470nSv/h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관평동 최근 5년 평균을(173nSv/h)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성구는 원자력 시설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6월부터 이동탐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측정결과를 공개해오고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최근 원자력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고조된 시기에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성을 가진 유관기관과 협의해 어느 정도 유해한지 확인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속하고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말했다. 앞으로 유성구는 아스콘 포장 전에 방사선을 측정하는 등 관내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도 계속 측정활동을 벌여 방사선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시 사용되는 골재에 우리늄계열의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지역을 전국 자연방사선량의 평균치(50nSv/h~300nSv/h)를 기준으로 환경방사선 측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이 과정에서 위 구간에서 자연방사선이 최고 470nSv/h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관평동 최근 5년 평균을(173nSv/h)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성구는 원자력 시설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6월부터 이동탐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측정결과를 공개해오고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최근 원자력 안전 문제로 주민 불안이 고조된 시기에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성을 가진 유관기관과 협의해 어느 정도 유해한지 확인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속하고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말했다. 앞으로 유성구는 아스콘 포장 전에 방사선을 측정하는 등 관내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도 계속 측정활동을 벌여 방사선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복 기자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 첫걸음 내딛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8일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교육 분야 협치(協治)의 상징 기구이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소통·협력의 자세로 공동의 장제를 채택하고, 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당연직 위원과 함께 학계·법조계·시민사회·학교현장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했다. 이날 협의회에 앞서 김상곤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학교 현장을 둘러보며 1인 1프로젝트 탐구, ‘앞의 나무’ 활동 등 수업혁신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실을 맺고 있는 삼각산고등학교 학교 협동조합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다음 안건을 의결하고, 학교자율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 혁신’에 있음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인식을 함께 했다.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학교혁신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등한 파트너라는 인식 하에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단계적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교육자치협의회는 로드맵에서 ① 3대 즉시이행 과제를 추진하는 ‘기반 조성’(17) → ② 학교에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침 정비하는 ‘성과 확산’(18) → ③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혁신을 정착시키는 ‘현장 안착’(19-) 등 3단계 추진 전략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동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올 12월 개최 예정인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학교가 ‘자율적인 교실 혁명의 주체’로, 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의 수립자’로, 교육부가 ‘자율적인 학교 혁신활동의 지원자’로 변화되어야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미래사회 인재 양성 등 정부가 그리는 교육개혁의 비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 현장이 원하는 3대 중점 과제 연내 시행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의 시각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들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17년 내에 즉시 이행함으로써 현장의 교육자치 체감도를 제고한다. ‘18년부터 초·중등 재정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예산규모, 지원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학교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우선, 초·중등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한다. 또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교육청과 학교에 큰 부담이 되었던 국가시책사업을 국정과제 중심으로 통합하여 ‘17년 기준으로 23개 사업, 1,000여 개에 이르던 내역사업 수를 5개 정책 영역, 19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한다. 국가시책사업의 신청 방식도 교육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 운영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공모운영으로 바뀌 교육청과 학교가 ‘스스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3월 개학 이후에도 수시로 예산을 교부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교육청에는 ‘17년 10월까지 → 학교에는 ‘18년 1월까지 사업예산의 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청의 본예산 편성은 물론, 학교가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차년도 운영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원사업 외에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분야별로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의 신학년 교육계획 수립 전인 11월 말까지 각종 지침·계획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공문만 인쇄하고,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도 조기 선정함은 물론,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 매년 2월을 학교가 신학기를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발령을 앞당기는 한편, 학년도 개시일도 반드시 3월 1일이 아니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창의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도교육청이 과중한 제재와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도 보다 확대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처음으로 모인 자리”라며 협의회에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는 단순히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는 교육철학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살려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이와 같은 교육혁신의 문화가 전파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 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역사적 의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권한 이양에 맞춰 ‘시·도교육청 역시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적절히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2017 World Ginseng Expo
Gyeongsan, Korea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다들여 내린 선물, 삼일에 우리 고려인삼
생명의 고향 허브의 땅, 충청남도 금산은 1500년 역사를 품은 고려인삼의 고향입니다. 인삼으로 얻어 내는 다양한 웰빙이 가득한, 웰빙이 가득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엑스포광장
2017.09.22.-10.23.

주최: 충청남도, 금산군 후원: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주관: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주최: 충청남도, 금산군 후원: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이재용 5년 형량 '너무 가볍다 43%' > 너무 무겁다 30%

<미디어오늘 긴급 여론조사> 5060 형량무겁다 응답 가장 많아연령별 인식차 뚜렷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주)에스아이와 함께 긴급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벌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 43.4%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했다.

지난 25~26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벌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묻혀 물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응답이 43.4%,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응답이 29.7%, '형량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23.9%였다. 잘 모르겠다, 3.0%.

연령별로 20대(가볍다, 53.4%), 30대(가볍다, 59.0%), 40대(가볍다, 63.7%)에서는 '너무 가볍다'

는 응답이 우세했고, 50대(무겁다, 39.0%), 60대 이상(무겁다, 48.8%)에서는 '너무 무겁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지층별로보는 더불어민주당(가볍다, 61.9%), 정의당(가볍다, 82.9%) 지지층에서는 '너무 가볍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무겁다, 75.8%), 국민의당(무겁다, 46.5%) 지지층에서는 '너무 무겁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바른정당(56.3%) 지지층에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영남(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너무 가볍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주)에스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이 부

회장의 형량에 대하여 법원이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선고에 있어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49.9%), 자유한국당(16.0%), 국민의당(7.2%), 바른정당(6.6%), 정의당(5.4%) 순이었다. 연령별로 민주당은 20대(56.9%), 30대(58.2%), 40대(64.1) 등에서 60%선 내외의 높은 지지를 얻었고 50대(41.2%)와 60대 이상(34.2%)에서도 다른 정당들보다 앞섰다. 한국당은 50대(22.4%), 60대 이상(26.8%)에서 20%대 지지를 나타냈다.

지역적으로 민주당은 호남(66.4%)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나타냈고 대구경북(37.2%)에서 가장 낮았다. 한국당은 대구경북(32.1%)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어 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했다. 국민의당은 호남(13.1%)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했으나 민주당 지지율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모든 지역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66.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지방자치인개발원 '지역 일자리 정책과정' 운영

일자리 정책의 성공적 추진 위한 마인드 제고와 정책방향 제시 등

지방자치인개발원(원장 배진환)은 새정부 핵심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마인드 제고와 정책방향 제시 및 로드맵 공유를 추진동력을 마련하고자 '지역 일자리 정책과정'을 운영한다. 일자리 창출은 새정부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4대 복합·혁신과제를 포함하는 등 현 시점에서 제1 국정기조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이러한 핵심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과정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역 일자리 책임관'을 대상으로 총 245명이 참석하여 2차에 걸쳐(제1기 : 8.29, 제2기 : 8.31)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는 행정안전부 변성완 지역경제지원관, 일자리위원회 한 훈 총괄기획관, 고용노동부 권도인 일자리정책평가 과정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 현장의 일자

리 창출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 일자리 책임관 뿐만 아니라 일자리 담당 지방공무원들도 다수 참석하는 등 지자체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배진환 지방자치인개발원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국정과제 시행을 위한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동력과 성과창출을 위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인개발원은 새정부 국정철학의 공유·확산으로 지자체의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고자, 일자리 창출, 지방분권, 인구정책 해소 등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2017년 하반기 시책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성일종 의원, '한국형 치매 모형' 윤곽 제시

국정감사대비...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서울·태안) 의원이 10월 국정감사 대비 '치매국가책임제의 선진국형 모형 제시'를 주제로 28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성 의원은 "국가가 치매 환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함께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 사안"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한국형 치매 관리 시스템, 인력 운용 방안, 시설 활용 방안, 제도적·사회적 뒷받침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해 '한국형 치매 관리 모형'의

지를 관리할 비용은 106조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많은 점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국형 치매 발전 모형'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서영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제대학교 교수, 하정화 서울대학교 교수가 각각 일본,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치매정책 모형을 발표했으며, 권태열 한국노인복지회장이 한국형 치매모형을 제시하며 성공적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30여명의 국회의원, 200여명의 정부,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들 및 환우들이 참석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성황을 이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서영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제대학교 교수, 하정화 서울대학교 교수가 각각 일본,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치매정책 모형을 발표했으며, 권태열 한국노인복지회장이 한국형 치매모형을 제시하며 성공적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30여명의 국회의원, 200여명의 정부,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들 및 환우들이 참석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성황을 이뤘다.

<촛불혁명,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다>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주최...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위해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직파 청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촛불혁명,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다> 토론회가 8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겨울 대한민국의 뜨겁게 달궀던 촛불혁명을 재조명하며 촛불시위·특검·국정조사- 촛불탄핵- 촛불대선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정치사회학적 의미를 되짚어 보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노경환위, 절수 설비 설치 촉진 조례 원안가결

충남지역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는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지역의 가뭄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각 가정 수도꼭지 및 변기 등에 절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안이 이달 7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수돗물 절약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이 수립된다. 또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과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

해진다. 이종화 의원은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누수량을 줄이고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면 자연재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제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제정이 이상기온으로 반복되는 가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를 분석해 줄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와 함께 '촛불시위', '촛불탄핵', '촛불대선'을 잇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촛불 개혁'에 대한 포함이 완성되었을 때 촛불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위와 촛불탄핵, 촛불대선의 산물인 만큼 촛불혁명의 책임을 엄중하게 부담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촛불혁명의 위대한 여정에 대해 박명림은 "촛불시위혁명은 그 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4.19에서 부산·마산 민주항쟁과, 5.18에서 6월 민주항쟁으로, 노동운동

천안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개최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환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제20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9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임시회 첫 날인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제2회추경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위원회별 주요 심사 안건은 중무환 경위 ▲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복지문화위는 ▲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14건, 건설도시위는 ▲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

특히, 천안시의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맞춰 시에 필요한 사항들이 적절히 편성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조 8,20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억원 증가했다.

제205회 임시회는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고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천안=김정환기자

국가인권위 '대선 출구조사원' 성별·학력 구분 모집하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근로자 모집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 대표이사에게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지난 4월 리서치회사인 ○○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 모집 시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학생'으로 한정해 공고했다며, 성별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원 자격을 여학생으로 한정 모집한 것에 대해 여성이라는 성별이 조사원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식약처 릴리안 생리대 안정성·유효성 검사 면제

양승조 의원, 2009년 이후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검사 생리대 1082개 중 4개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이 28일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깨끗한 나라주의 '릴리안 생리대'가 식약처 품목신고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이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릴리안은 2007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5개 품목은 식약처에 신고, 허가 요청하였는데 75개 품목 모두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면제된 것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규격이(의약품에 관한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에 수재되어 있거나, 기존에 이미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구성 성분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이 면제"되는데 "릴리안 생리대인 경우 앞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규격이 수재되어 있어 면제되었다"고 밝혔다.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규격이 수재되어 있어 면제되었다는 의

미는 식약처 고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생리대에 대한 ▲재법, ▲성상, ▲순도시험, ▲조작조건, ▲질량, ▲흡수량 ▲삼출 ▲강도 등이 자세히 규격화 되어 있으니 이를 준수하기만 하면 따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식약처 고시의 맹목이 이용되어 생리대에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 받은 생리대가 한두개가 아니라라는 점이다.

식약처 담당자에 따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식약처 고시의 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21조로 인하여 대부분의 생리대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식약처에 생리대의 신고, 허가 요청은 총 1082건이었는데,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받은 생리대는 4개에 불과하였다.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면제 받은 생리대들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법, ▲성상, ▲순도시험 ▲흡수량 ▲삼출 등이 기준규격에 맞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기준규격에 맞게 생리대가 만들어졌는지 식약처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릴리안 생리대 또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릴리안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리대가 식약처 고시의 맹목을 이용하여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면제받고 있고, 기준규격에 맞게 생리대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인도 못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관련 부분의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오인철 의원, 인도 없는 통학로 해결 위한 정책 제안

도내 인도 없는 통학로 해결 위한 정책



연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28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 두정초등학교와 오성초등학교의 등하굣길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교통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인도 설치를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천안 두정초와 오성초는 현재 각각 39학급에 학생 수 949명과 48학급에 126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향후 신규 아파트 공급 증가로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매일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이 출근 차량 등이 뒤엉켜 교통정체를 유발, 인도 없이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인도 설치에 관한 강령규정은 없으나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도의 최소 유효 폭은 2m(최소 1.2m 이상)로 하도

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두정초와 오성초 주변은 인도가 아예 없거나 최소 폭 1.2m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인도 설치를 촉구와 동시에 ▲충남 교육청과 충남도청이 함께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전담 TF팀 운영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최소기준 1.2m 미만의 통학로 실태점검 및 대응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은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가장 기본"이라며, "우리의 자녀들이란 마음으로 인도를 설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행정수도 개헌 행보

국회 방문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 설명하고 협조 당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8일 개헌 논의가 진행중인 국회

방문해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김광영 국회 개헌특위 1소위원장과 전철철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를 둘러싼 논의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조문에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울조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방문한 이후 올해만 개헌특위 의원과 네 차례의 만남을 갖는 등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심혈을 기울어 왔다. 시는 또 29일 시청에서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추진 동력을 결집하는 한편, 오는 10월에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행정수도 개헌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전문가 64.9%, 일반국민 49.9%로 각각 높게 나타나는 등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정복기자

대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서구가장 많아

위반행위자 45명 적발 · 과태료 2.2억 원 부과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1건(45명)을 적발하고, 2억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그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통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건수는 31건(45명)으로 총 부과액은 2.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배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부동산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2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건(3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 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15건(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7건(10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유성구가 1.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인근 세종시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흥미진진 공주문화재야행' 호응

공주시 문화재 가치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공주시(시장 오시택)는 지난 25일과 26일 세계유산문화재인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그리고 원도심 일원에서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다양한 문화유산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한 야간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인 '흥미진진공주 문화재 야행'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번 야행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써, 공주시를 대표하는 세계유산 문화재 지역과 원도심의 근현대 문화재 지역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 행사장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공주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공주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즐겼다.

특히, 이번 야행은 공산성에서는 '공산성 별빛 음악회', '별빛 산성걷기', 송산리고분에서는 '무명왕별, 공주별을 찾아라'가 진행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한, 원도심의 근현대문화재 지역에서는 '아트 마켓', '정시초롱도도', '프린지 공연 및 상황극', '소원종이배 띄우기', '철화분청사기 전시 및 체험' 등이 펼쳐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한데 어우러진 흥미진진한 문화의 장

이 펼쳐졌다. 시는 올해 두 번의 야행 개최를 통해 공주의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야간 문화재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주의 소중한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오시택 시장은 "올해 문화재 야행의 성공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만든 결과"라며 "본 행사가 매년 지속되어 공주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대전 중구 2018년도 정부예산안 113억 반영

인명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국비 38억원 신규 포함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은 대전 중구·시장은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되는 '인명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38억원을 포함하여 대전 중구 현안사업 국비 113억4백만원이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대전 중구 현안사업은 '인명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외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보문1, 보문3구역)'에 32억3200만원, '원도심 쇠퇴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으로'에 21억4200만원, '대전 원도심 근대문화탐방로 조성'에 6억7500만원, '대문초등학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개보수'에 1억원, '차유의 숲 조성'에 8억

5600만원, '대전 청소년수련마을 기능보강'에 2억44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1900만원, 그리고 '대전전 좌안, 옥계동 상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3600만원 등 총 113억4백만원이 반영되었다.

특히, 지난 7월 20일에 착공 및 기공식을 가진 '인명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경륜장 건설이 무산된 후 부지활용 방안에 난항을 겪다가 대전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회 제고를 위해 전체 164520㎡의 면적에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며 총 9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1단계 사업은 내년 말 준공계획으로 부지면적 110,648㎡에 축

구장(5면)과 진입로, 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은권 의원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인명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이 2018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라며 "주변 관광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치적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노력 끝에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었다"며,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예산안에까지 확정되어 대전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정복 기자

“국정과 호흡 맞추는 시정으로 발전고리 만들자”

권시장, 실증사업 전국화·일자리 확대·경매장이전 등 논의

권선택 시장은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시 주요 정책에 시대정신이 담겨야 함을 강조했다.

권 시장은 "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 시정의 호흡을 맞추는 공조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며 "각 실국은 현재 시행 중인 정책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시대정신을 담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정량적 가치뿐 아니라 정성적 요소도 중요하다"며 "계획 수립에 있어 강조점과 특성을 살리고 미래가치적 연결고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시가 각종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정부정책으로 채택되면 담당자를 과격적으로 발탁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마무리된 정부의 내년도예산안과 관련, 반영이 미흡한 현안사업이 국회 심의과정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권 시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4차 산업혁명 추진,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옛 충남도청 활용사업 등 매듭이 안된 것도 있어 끝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이날 권 시장은 일자리 창출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일자리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되는 여러 사례를 잘 분석, 대전형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에컨대 기업과 함께 하는 노·사·정 협력 모범사례 등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시장은 지난 주동구 삼성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지반함몰)현상과 관련해 시-자치구 합동점검을 지시했다.

권 시장은 "이번 싱크홀이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만 지반침하 원

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시와 자치구가 합동 점검하고, 발견 시 긴급 보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유명근의원 발의, 민간위탁기본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집행부가 독단적 추진 잘못”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 제196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애) 상임위원회를 28일, 개최했다. 이날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민간위탁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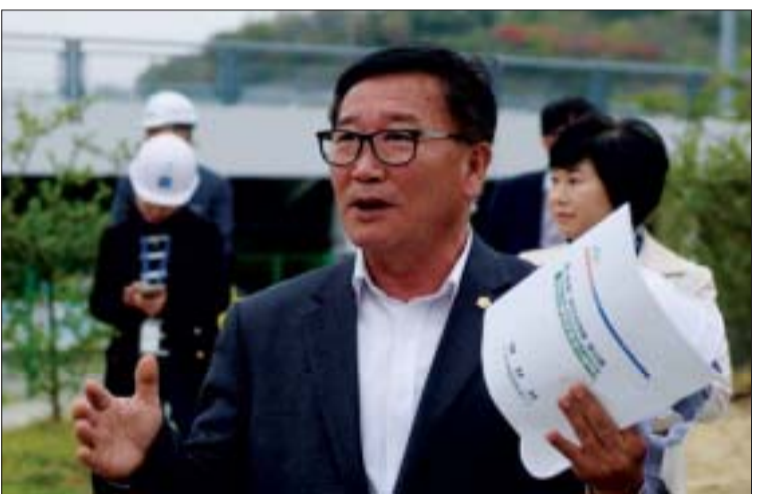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행 사무를 포함해 개정,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당위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법정위탁으로 규정, ▲중·개축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조항 추가 등이다.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 담당 과장은 민간위탁과 관련한 대행은 각각의 법

적 성격이 다르고 대행사무는 관련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며 '대행'을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법정위탁의 규정에 대해 법정위탁에는 공공위탁도 포함할 수 있어 민간위탁의 하위 개념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개축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2016년 법제처의 규제개선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삭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명근 의원은 "민간위탁과 민간대행은 사전적, 개념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실무에서 실질적, 행정적 차이는 구별의 실익이 없다.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에서 운영발주한 행정사무



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보아도 그 구분이 실익이 없다고 표현되고 있다. 우리시 제출예산을 봐도 108건에 1천여억원의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성립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예산만을 남기고 편성목이 잘못 편성된 대행 예산 등에 대해 삭감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녀순환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위탁의 규정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에서 제2조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자체 감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산=리량주 기자

천안시 사업체와 종사자수 지속 증가

2015년 기준 '천안시 사업체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4.0%의 증가율 보여

천안시는 시정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천안시 사업체조사 결과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매년 관내 1인 이상 종사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과 7월에 통계 조사요원 110명이 현장을 방문해 사업체의 분포, 고용구조 등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천안시에 소재하는 전 산업의 사업체수

는 4만 6,226개소, 종사자수 26만 8,21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사업체수는 1845개 증가, 4.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충청남도 전체 사업체수의 29.2%에 해당하는 수치다. (충남 사업체수 15만8308개)

종사자수는 1만 4,512명 5.41%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충청남도 종사자수의 3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종사자수 85만8314명)

전체적으로 사업체수는 소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내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는 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구분해 보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광업, 금융,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사업체수와 종사자를 보면 수진면이 222개(8.1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중앙동이 -32개(-1.40%)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 천안시 사업체 조사 결과보고서는 천안시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의 분야별도 우미 - 천안시통계-통계자료실에 게시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박현준 정보통신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가 시민행정 및 연구기관, 민간기업체 등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해 정확하고 질 높은 통계 작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 장애인단서 발급비용·검사비 지원

아산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등록률을 제고하고자 장애인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이 신규 등록하거나 재관정을 받을 경우 단서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장애등록이 필요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재관정 기간이 도래되었으나 필요한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로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관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이다. 검사비용 지원대상자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 아동 수당신청 및 의무재

판정으로 제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이다.

장애인 등록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을 비롯하여 활동지원 및 경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에 따라 전화요금 및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아직도 주변에 생활이 어렵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경로장애인과 540-2776로 연락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MG상상뱅크' 서비스 오픈 예정

새마을금고 무료 신용조회 등 One-Stop

이제 새마을금고도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무방문, 무서류, 무증빙으로 간편하게 소액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창구서비스, 'MG상상뱅크'가 구축되어 곧 출시될 예정이다.

'MG상상뱅크'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금융서비스라는 의미로, 모바일을 통해 내 손안에서 전국의 새마을금고 상품을 선택해 다양한 금리를 조회하고 공인인증서없이 간편 송·출금, 결제, 환전 등의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에 새마을금고를 거래한 적이 없는 고객이라도 비대면 실명확인(바이오인증(지문)) 등을 기반으로 간편한 계좌 개설부터 모바일 신용대출, 여행지공제, 무료 신용조회, 환전까지 One-Stop으로 해결된다.

새마을금고는 'MG상상뱅크' 플랫폼을 통해 지역기반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젊은 층을 공략해 비대면 신규 고객을 유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자금융팀장은 "MG상상뱅크를 통해 은행권에 견줄 수 있는 금리를 제공하고 간편한 대출서비스를 내세워 20~40대 직장인층을 공략하며, 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플랫폼을 구성했다. 앞으로 고객 신용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영역을 넓히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모바일 금융플랫폼으로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중 오픈을 앞두고 조기 가입자에게는 모바일 기프트콘을 제공하고, 여행사 제휴를 통해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오픈기념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소·염소·사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아산시는 소, 염소, 사슴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9월 한달간 집중 실시

시하여 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는 지난 2월 구제역 발생시 일제접종을 통해 면역력 향상으로 구제역 확산 차단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장수의사 등을 중심으로 일제접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바에 기인한다.

시는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항체형성을 저조 및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활용하여 접종을 지원할 것이며, 전업농가는 자체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반을 통한 접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귀농 귀촌의 꿈 청양에서 펼치세요"

예비 귀농귀촌인 맞춤형교육 청양반 8기 수료

청양군이 예비 귀농귀촌인의 성공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청양에서 마무리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7일 교육생 30명과 귀농귀촌협의회 임원(회장 김종덕)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 귀농귀촌인 맞춤형교육 청양반 8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21일 ㈜MBC귀농아카데미에서 입교식을 시작으로 이론 과정 5일과 현장체험 및 실습 과정 1박 2일 등 총 35시간 이수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은 귀농귀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영농정책 기초 다지기로 진행됐다.

청양=정상범기자

특히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선배 귀농인들이 전문 멘토로 나서 영농과 농촌생활 정착과정 경험담을 통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토마토, 블루베리, 구기자, 포도, 양봉 선드농가 및 부자농촌지원센터 현장체험을 실시해 귀농의 꿈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수도권 도시민중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영농지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일의 귀농귀촌 희망지에 걸맞은 정책방향 설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공단 수색~서원주 고속화 구간 시험운행 나선다

최고속도 230km/h까지 증속 예정... 11월 말까지 종합시험운행 완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수송지원을 위해 고속화를 추진하고 있는 수색~서원주 기존선(108.4km)에 28일 새벽부터 시운전열차를 투입해 종합시험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철도유관기관 전문 인력들과 함께 종합시험팀을 구성해 전철전력·신호·차량 3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시운전 열차가 최고 230km/h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수색~서원주 기존선 고속화 사업은 KTX 등 고속열차가 최고속도 230km/h로 운행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영업열차가 현재 운행 중인 구간임을 감안해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야간시간대에 시운전열차를 단계적으로 증속해 최고 230km/h까지 운행하면서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28일 동안 신호체계 시험 등 시설물 검증을 시행한다.

시설물 검증이 끝나면, 10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제 영업상황을 가정한 인공열차시험-수색~서원주~강릉 구간(236.5km)에 KTX 열차를 투입해 운행체계 적정성·운영관리능력·관계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기관사의 노선숙지훈련을 병행해 안전하고 완벽한 개통에 철저히 대비한다.

아산=리량주기자

주민자치센터 행정매니저 모집

서천군, 동네자치 실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강화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청년실업자의 실업해소 및 동네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착근형 청년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공공근로사업은 서천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체계적 인 관리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행정매니저' 사업으로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서천읍, 장항읍, 한산면, 판교면, 종전면, 비인면, 서면 지역에 각 1명씩 배치(총 7명)되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

치위원회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사업제시일 현재 만19세 이상 ~ 만34세 미만의 서천군민(총 6개월거주) 중 미 취업자이며 신청기간은 28일부터 9월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공고는 서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041-950-4132)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김태성기자

Q&A로 알아보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Q. 조정 신청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조정절차가 개시되는지?
A. 조정신청을 접수한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부본이나 조정신청조사 부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그러한 서류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비로소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A. 따라서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042)538-3030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청양군 '보부상, 문화를 전하다'

전통시장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기대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27일 청양시장일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옛 전통시장의 소중한 문화였던 '보부상, 문화를 전하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충남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보부상의 가치와 놀이를 전승·보존하고, 보부상 장마당놀이를 통해 과거의 장터에서 성행했던 전통놀이와 문화예술공연을 접목시켜 전통문화예술 축제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보부상단원홍주등육군상무사와 청무풍물단의 보부상 길놀이 ▲충남도 무

형문화재 제26호로 서산박점지놀이인형극 ▲청양문화원의 경기민요, 한국무용, 트로트, 아코디언, 통기타 공연 ▲공주예총의 가요, 색소폰 공연 ▲청양 청년단체 청년회합의 청년발자국 음악공연 ▲버블아트 퍼포먼스 등을 선보였다.

또 체험 및 부대행사로 ▲청년문화보부상단들의 플라마켓 ▲보부상 복식체험 ▲떡메치기 체험 ▲죽방울놀이 ▲등잔지기 ▲보부상 목각인형 만들기 ▲짚공예 체험 ▲나만의 우포 만들기 ▲보부상 모자 만들기 등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시, 많은 이벤트로 관광객의 눈길 끌어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서 인기



온공화상품 등 지역특산품을 전시·홍보 하였으며 아산시 주요 관광지에 대한 퀴즈와 아산관광지 배경에서 즉석사진 찍기 등 많은 이벤트로 관광객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시는 가을 나들이객 유치를 위해 곡교천 은행나무길, 아산 외암마을 등 가을철에 가면 좋은 아산의 명소를 적극 홍보하고 올해 새로 개관한 고불 행사장 기념관(아산시 배방읍 행단길 25)과 가을코스 개편한 온양온천시티투어도 적극 알렸다.

이상득 문화관광과장은 "박람회를 통해 온천·관광·휴양도시 아산을 널리 알리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발전 위해 아산시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K-water, 소양강댐과 충주댐 수문 열어

집중호우 태풍 등 홍수조절 공간 확보

K-water(사장 이학수)는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 소양강댐과 충주댐 수문을 열어 앞으로 있을 집중호우 또는 태풍 등에 대비한 홍수조절 공간을 확보했다.

이번 수문개방은 장마 기간부터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속한 한강 수계에 예년 대비 128%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려 댐 수위가 지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댐 수위를 낮춰 후속 강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댐의 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낮춰 여유공간을 확보해 탄력적인 홍수조절이 가능해

졌으며, 홍수기 제한수위는 댐의 홍수조절을 위한 기준수위로 이를 초과할 경우 수문방류 등을 통해 수위를 조절하며, 소양강댐의 홍수기 제한수위는 해발 190.3m, 충주댐은 해발 138.0m이다.

그간 한강수계 다목적댐은 6월 까지 비가 예년의 절반 수준밖에 내리지 않아 가뭄 '관심' 단계까지 도달한 바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마기간 물을 방류하지 않는 저류위주의 댐 운영으로 현재는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해 앞으로 수도권 용수공급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박봉관기자



충남 농협 하나로마트 농업인생산기업 상품 판매 앞장 서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진형)는 충남도내 농업인생산기업의 우수상품에 대한 판매행사를 논산계룡축협(조합장 임영봉) 계룡점 개장을 기념해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우수상품 10여개 품목을 선정해 홍보 및 판매전을 펼친다.

세계 5대 특허청 통계 전문가 회의 개최

특허청, 통계 품질 제고 방안 논의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세계 5대 특허청(이하 'IP5')의 통계 품질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제6차 IP5 통계 실무그룹 회의'를 국립고급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의 약 80% 이상의 출원을 처리하는 IP5 특허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되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전 세계 특허 이슈를 이끌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IP5 특허청의 통계 분야 실무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통계 데이터의 교환과 활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IP5 출범 10주년을 맞아 변화된 지식재산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간

의 추진 과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과제를 선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회의의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IP5 통계 보고서 발간 등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점검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 출원규모 예측,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 분류체계 의제를 통해 새로운

과제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는 세계 특허통계 표준화 체계의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IP5 통계의 지능정보기술 적용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봉관기자

대전교육청, 603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학교시설비 524억원 투자 확대로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기정예산 보다 603억원 증액된 2조 22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주경 취지를 감안해 신속하게 편성했으며,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우선 반영, 미세먼지 대책 및 학교 급식 환경 개선 등 학생 건강·안전 관

련 예산에 중점을 두었다.

세입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535억원, 자치단체전입금 68억원 등을 편성했고, 세출 예산은 다목적강당 등 학교시설 증축비 79억원, 석면제거 및 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428억원, 공기정화장치 시범 설치 7억원,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비 16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의회 제23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9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안전제고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동'

조폐공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발족

한국조폐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www.komsco.com)는 28일 정부의 좋은 일자리 확충 정책에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기획이사 및 노동조합 임원을 포함한 조폐공사 내부 위원 5인과 외부 전문가 3인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 등을 결정하는 일을 맡는다.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조폐공사 내부 직원과 두레비즈 등 외부 협력업체, 외부 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구체적인 전환대상과 방식, 시기,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을 협의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조폐공사는 앞으로 심의 및 협의의 과정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 외부 노사 전문가 등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 범위, 전환 방식, 채용방법 등을 조속히 결정해 빠르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병배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 추경예산 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추진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17년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및 기업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인원을 늘리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 청년취업지원 사업이다.

그간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 청년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하는 등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형태였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청년은 종전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되, 정부의 경우 900만원, 기업은 400만원으로 각각 인상·적립하는 등 청년에게 총 1,6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 (기준) 청년 300만원 + 기업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1,200만원 (확대) 청년 3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900만원 = 1,600만원
한편, 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인턴 채용시 채용유지지원금을 2년간 5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채용 기업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2년간 600만원 지원하는 등 참여 경로별로 다르게 지원한 것을 지원금 명칭과 상관없이 똑같이 700만원(이 중 400만원은 청년공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으로 통합·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유탁기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omo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조기착수 강력 희망

시민 공감대 확산 및 대정부 건의활동 지속 추진키로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28일 고마컨벤션홀에서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체, 공주·세종·부여·보령·청양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계기로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구축의 시민공감대 확산 및 대정부 건의활동 지속 추진을 위한 충청산업문화철

도 사업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충청산업문화철도는 세종(조치원)~공주~청양~부여~보령을 잇는 총 연장 89.2km의 노선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 돼 있다.

이날 설명회는 공주대학교 이선하 교수와 충남연구원 김형철 박사가 발표자로 나서 충청산업문화철

도 추진 방안 및 역할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 시민들의 질의응답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선하 교수는 철도가 완공되면 장항선, 경부선, 중앙선과의 연계를 통해 동서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 돼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이 기대되며, 충남도내에서 가장 낙후되고 인구감소로 도시축소 위험이 높은 지역인 공주, 보령, 부여, 청양 4개 시군의 균형발전 기여하고 문화교류증대로 백제문화관광, 해상관광분야의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시덕 시장은 "국도의 균형발전과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며, "모든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충청산업문화철도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한밭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 한밭대 수시전형의 특징

▲전형방법 간소화= 한밭대 수시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위주 전형으로 단순화됐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제출서류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 간소화 되었으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교과전형과 실기위주 전형에만 적용한다.

▲모집인원= 한밭대는 2018학년도 전체모집인원 2060명 중 수시모집에서 1414명을, 정시모집에서 646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의 학생부위주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628명을,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786명을 모집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역인재전형은 91명을 선발한다. 2017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했던 학·석사통합과정은 올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120명을 선발한다.

▲전형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절차는 단계별 평가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로 3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2단계에

서 1단계평가 결과 50%와 면접 5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1단계 학생부 평가는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해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교과 영역은 성적의 정량평가를 지양한다.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동양식의 세 개의 문항을 우리 대학의 교시인 성실·인화·창조와 연계해 평가하고, 자율항목은 우리 대학 지원동기와 지원전공분야에 대한 학업계획을 평가한다.

학생부 교과전형 성적산출 방식은 학생부 100%(교과 80%+비교과 20%)로 선발한다. 학생부 교과 영역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수한 과목을 대상으로 자연계열은 국어·수학·영어 교과 중 각각 상위 5과목과 과학 교과 상위 3과목을 합해 총 18개 과목의 평균등급점수를 반영하고 인문계열은 국어·수학·영어 교과 중 각각 상위 5과목과 사회 교과 상위 3과목을 합해 총 18개 과목의 평균등급점수를 반영한다. 비교과영역은 출결상황을 점수화해 반영한다.

디자인 계열(일반주) 중간 기준) 전형방법은 학생부 60%(교과 48%+비교과 12%)와 실기 40%로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영역의 성적산출 방식은 학생부교과전형 중 인문계열과 같은 방식이며 비교과영역은 출결상황을 점수화해 반영한다. 실기는 발상과 표현·기초 디자인·사고의 전환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실시한다. 실기위주 전형에 적용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영어는 5등급 이내이며, 국어·수학·탐구(과학/사회) 중 2개 영역의 합이 10등급 이내다.

이정복기자

몰카 범죄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경찰청, 몰래카메라 촬영에서 유포까지 집중단속

경찰청이 최근 전국의 유원지와 지하철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 적발건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피서철 '카메라 등 촬영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여성청소년·형사·생활안전 기능 합동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지자체, 여성단체들과 함께 지난 7월 1일~8월 20일까지 해수욕장(415개소), 지하철(705개소), 물놀이시설(2,070개소) 내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여청수사기능과 지하철 수사대는 이 기간 중 '피해자 40여명의 치마 속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촬영물을 전시한 자'를 검거(불구속)하고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한 자'를 구속하는 등 총 983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769명 → 983명, 검거인원 기준)한 수치다.

사이버수사 기능에서는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몰카 촬영물 유포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7월 24일~10월 31일

'음란물 주요 3대 공급망(▲사이트 운영·광고업자 ▲웹하드·해비업로더 ▲음란인터넷방송 관련업자) 상시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8월 20일 까지 77건을 단속했고, 8월 16일 부터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캡스'를 활용하여 음란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휴대폰 등 범행도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및 증거자 압수수색」등을 통해 사진, 동영상, 단순 복원은 물론이고 은닉·전송·인터넷 게시 등 여죄까지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몰카 유형의 음란물 등 명백히 불법 정보 삭제·차단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 회의(8월 24일)」에서, '몰카 촬영물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 삭제·차단 대책'을 논의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노력할 계획이다.

박봉관기자



청양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순)는 28일 청양초등학교 후문에서 교통경찰, 충남교통연수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학교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개학철을 맞아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아산소방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근)는 28일 오전 코카콜라 주식회사(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소재)에서 코카콜라 주식회사 영업사원 35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카콜라 주식회사 의뢰로 회사내 소방안전망을 구축해 화재 및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국민행복 소방정책 추진 보고회

예산소방서, 각 부서장 및 담당자 등 20여 명 참석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28일 오전 회의실에서 각 부서장 및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성과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민행복 소방정책은 화재예방정책과 현장대응활동역량강화를 통해 각종 육상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수호목표로 진행되며, 소방행정관리분야, 예방안전관리분야 등 5개 분야 29개 지표 77개의 세부지표를 가지고 중점 추진 중에 있는 소방정책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한 보건·안전관리 실적, 소방정책 및 대응활동 홍보실적, 화재·구조·구급활동 역량 강화, 소방장비 관리 강화 등 핵심목표에 대한 각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해 추진계획과 개선방안 및 문제점 등을 토의했다.

김희규 소방행정과장은 "성과를 위한 업무추진을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안전환경 구축을 위해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양성업기자



태안소방서, 굴절사다리차 조작훈련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가 현장직원을 중심으로 태안소방서 건물 앞에서 실전같은 굴절사다리차 조작훈련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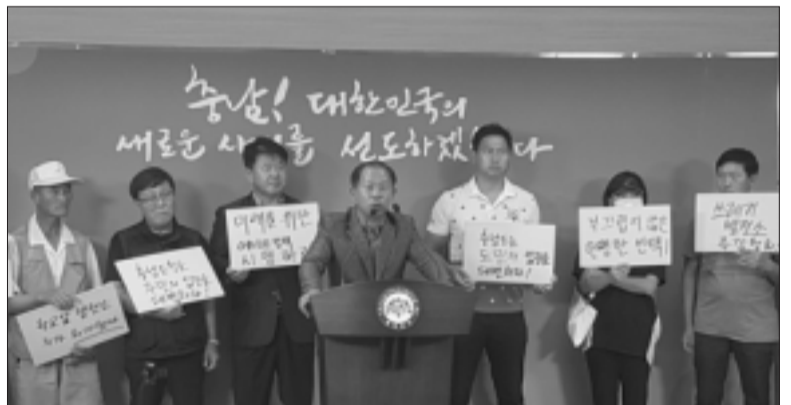
이번 훈련은 아파트 및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굴절사다리차의 각종 센서 기능 숙지 및 작동원리, 화재발생시 회전반경, 부서위치 등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평소 주기적인 장비관리와 조작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모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굴절사다리차는 최고작업높이 47m, 약 15층 높이까지 사다리 전개가 가능하며 원격조정에 의한 무인 방수 및 성인 4명까지 태울 수 있는 바스켓 용량(350kg)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안=김정환기자

내포신도시 쓰레기발전소 반투위, 백지화 촉구

열병합발전소 전면 백지화 요구하는 기자회견 가져



쓰레기발전소 소반대위원회(노길호·이태하대표)가 28일 도청 브링룸에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 건설 중인 열병합발전소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LNG를 연료로 하는 열 공급 시설만이 가능하다며 산업쓰레기를 연료로 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뿐

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발전시설은 어떠한 연료를 사용하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며 주거지가 인접한 곳에 설치하려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에서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SRF로 하는 것은 반대하고 LNG를 연료로 하는 것은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인 만큼 에너지집단지원은 민간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포=김정환기자

토양·지하수 DDT 등 농약성분 긴급 실태조사 착수

환경부,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안전대책 추진 계획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경북 경산, 영천의 산란계 농장 토양 등에서 DDT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양·지하수에 대한 농약성분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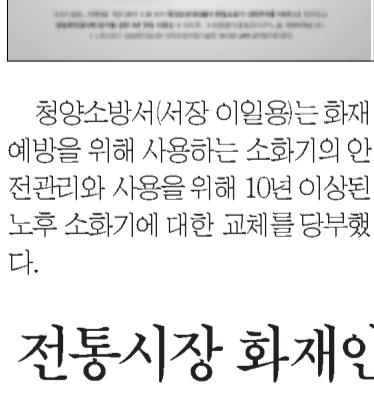
그간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2008년부터 토양·대기·퇴적물 등에서 DDT를 조사하였으나 국외 기준 대비 매우 낮은 농도로 검출돼 왔다.

환경부는 조사지역의 토양·지하수에 농약성분이 고농도로 발견될 경우 토양은 토양정화(토양개량 포함) 또는 위해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지하수는 음용금지 및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단위 토양·지하수 농약성분 오염도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DDT를 비롯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과 토양·지하수 관리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정환기자

청양소방서,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화재예방 위해 사용하는 소화기의 안전관리와 사용 위해



가압식 소화기는 지난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서 현재는 생산이 중단되었다. 또한 최근 생산되고 있는 가압식 소화기와 달리 압력계이지가 없어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폭발 위험이 있다.

올해 1월 29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 의거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었으며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청양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 사용하는 사용용일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 나서

부여소방서, 관내 전통시장 일제조사 실시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관내 전통시장 일제조사를 통해 화재안전등급분류에 나섰다.

이에 소방서는 지난 16일부터 3일간 부여읍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관내 5곳의 전통시장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세부조사표를 작성했다.

부여=김태성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공주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관 의사결정 훈련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28일 통제단으로 구성된 통제단장 및 각센터장, 현장대응단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관의 시정결정훈련을 실시했다.



아산시보건소, 어린이집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실시 아산시보건소(소장 김기봉)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어린이집 450곳, 종사자 2,347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무료로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잠복결핵검진 단계에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를 조기 발견하고, 발병 전 치료함으로써, 결핵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2016년 개정된 결핵예방법 및 결핵인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7-776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민사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김영규	남	연74세	430117-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로 238 대원동구 대원로935, 101동 701호(삼성동, 한빛자이아파트)

2. 사망 관련내용

가. 발견일시 : 2017. 7. 19. 20:00경
나. 발견장소 : 대전 동구 대원로935, 101동 701호(삼성동, 한빛자이아파트)
(대전 동구 성남동 소재 대전한국배원 연합실 안쪽)
다. 사망원인 : 농약중독사
라. 기타사항
- 민사자 유류품 : 현금3,675천원, 휴대전화, 주민등록증, 지갑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금 445천(유류금품의 처분) 전용하여 현금 750천원 정액 비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2,925천원 구 세입세출의현금출납내역 예치(10%)

3. 공고기간 : 2017. 8. 25. ~ 2017. 9. 24.(1개월간)

4. 처리내용

가. 화장일자 : 2017. 8. 21.
나. 화장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평림동 소재 공원남골당(☎ 042-610-2900)
다. 봉안기간 : 2017. 8. 22. ~ 2027. 8. 21.(10년)

5. 연락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 042-251-4420)

201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직장인 94% ‘쉽포족’...아파도 못 쉬어”

<사람인>조사결과... 아파도 출근한 이유 ‘회사,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우리나라 직장인의 대부분은 ‘쉽포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쉽포족이란 쉬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바쁘고 고답하게 사는 직장인이라는 뜻의 신조어이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1,105명을 대상으로 ‘아파도 출근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려 93.8%가 ‘아파도 참고 출근한 경험 있다’라고 답했다.

아파도 출근한 이유는 ‘회사,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55.7%, 복수응답)를 1위로 꼽았고, 바로 뒤를 이어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50.9%)라고 답했다. 다음은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36.6%), ‘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아서’(30.2%), ‘다들 참고 일하는 분위기라

서’(22.4%), ‘꼭 그 날 해야 할 일이 있어서’(21.4%), ‘출근 후 병원을 가면 되어서’(13%),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까 봐’(8.8%) 등의 이유를 들었다.

아파도 참고 출근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까?

출근을 강행한 직장인의 78.4%(복수응답)는 업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향으로는 ‘병을 더 키웠다’(41.5%), ‘업무 중 실수가 잦아졌다’(32.4%), ‘결국 조퇴를 했다’(20.6%), ‘주변에 짜증을 냈다’(14.5%), ‘동료에게 병을 옮겼다’(4.3%) 등이 있었다.

이들 중 절반 이상(58.5%)은 결국 조퇴를 하거나 만차를 썼다고 답했다.

아픈 몸으로 출근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픈 동료가 출근하면 끼치는 영향으로는 ‘인경 쓰여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33.5%, 복수응답)를 1위로 뽑았다. 이외에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된다’(25.2%), ‘도와주느라 업무가 과다해진다’(22.4%), ‘도와주면서 더욱 사이가 좋아진다’(11.8%), ‘동료로부터 병이 옮겨진다’(9.6%), ‘잡은 짜증 등으로 분위기가 저하 된다’(9.5%),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이 된다’(3.7%) 등이었다.

‘특별한 영향은 없다’라는 응답은 26.4%였다.

한편, 아픈데 출근한 동료에 대해서는

‘안쓰럽다’(56.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격정스럽다’(22%), ‘어쩔 수 없다’(11.3%), ‘답답하다’(5.9%), ‘미련하다’(2.5%) 등의 순이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2016년 OECD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가 역시 주어진 연차의 절반 정도밖에 쓰지 못하고 있다.”라며, “직인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업무에 임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장기 근속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2017 을지연습 자체 강평 보고회 실시

당진교육지원청, 향후 개선 사항을 발굴 및 보완 위해 마련

당진교육지원청은 28일 오전 9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2017 을지연습 자체 강평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번 강평 보고회는 지난 21일~24일 4일간 실시한 2017 을지연습 실시 상황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발굴 및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교육지원청은 21일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최초 상황보고 ▲전시

직제 편성 훈련 ▲안보 동영상 시청 ▲비밀 반출 훈련 ▲화생방 훈련 및 비상식량 체험 ▲군장비 전시 ▲심폐소생술 ▲학교 재배치 훈련 등의 주요 연습을 실시했다.

전석진 교육장은 “지난 3박 4일간 실시한 을지연습은 다양한 위기상황 연습으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교육공동체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세종시교육청, 2017 세종교육 콘텐츠 공모전 작품집 발간

세월호 참사 3주기 맞아... 운문·그림 579개 작품 담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4.16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지난 3월 21일(화)부터 4월 4일(화)까지 실시한 ‘2017 세종교육 콘텐츠 공모전’의 작품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공모전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주제로 열렸으며 세종시 유·초·중·고 학생들이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추모의 뜻을 담아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함께 힘을 모은 579개 작품이 접수됐다.

세종시 관내 전체 115개 학교 중 65개 학교가 참여하여 56.5%의 높은 참가율을 보였고, 심사를 통해 총 21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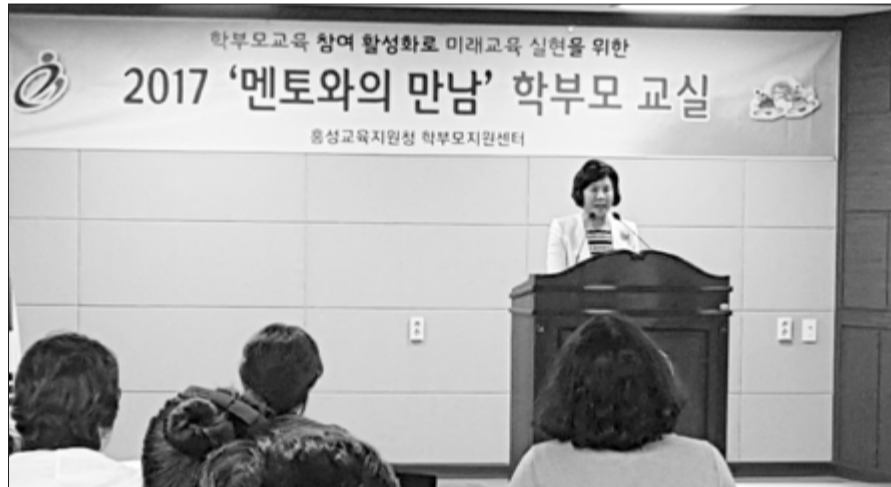
세종시교육청은 참가자들이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추모의 뜻을 더하기 위해 접수된 모든 작품을 작품집에 담아 발간해 공모전 참가자와 세종시 관내 학교,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발간사에서 “이 작품집에 담긴 마음이 온 국민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 마음들이 모여 촛불 광장을 이루었고 세상을 바꾸고 있다. 세월호의 희생은 우리 앞길을 비추는 별이 되었다. 그 별빛을 따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정의로운 세상, 아이들의 삶을 살리는 교육을 이루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홍성교육지원청, 2017 ‘멘토와의 만남’ 학부모교실 운영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800여명 대상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옥심)은 25일 오전 10시 홍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8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멘토와의 만남’ 학부모교실을 운영 했다.

‘멘토와의 만남’ 학부모교실은 홍성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학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올바른 부모 역할과 자녀 교육에 대한 주제 중심으로 행복한 자녀 성장을 돕기 위한 학부모 교육

이다.

이날 강의에는 김민 교수의 ‘인재(人材)양성인가, 인재(人災)양성인가?’라는 주제로 교육 목적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함께 동기부여가 결여된 수동적인 교육의 한계,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00초 학부모는 “이와 같이 유익한 교육이 자주 있기를 희망하며, 내 자녀가 진정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홍성교육지원청은 학부모와 소통하는 학부모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학부모 교육에 대한 안내사항은 홍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홍성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 630-5535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정한기자

‘학생주도 공주시 고등학생 자율 축구리그 대회’ 개최

공주교육지원청,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학생 주도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와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해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17년 제1회 공주시 고등학생 자율 축구리그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각 학교를 대표하는 선수 100여명과 학생 심판 및 운영위원 3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에 학

고 FC가 그동안의 쌓은 기량을 뽐내었다.

경기를 관람한 각급학교 교사와 지역 인사들은 “자율 축구리그는 경쟁을 넘어서 배려와 존경을 몸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대회 운영을 통해 지역의 전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교육지원청 이연주 교육장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회로 운영할 것이며, 자율 축구리그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학생자치활동 능력을 높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대회 운영의 소견을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이산신도시마을교육공동체, 보너스 축제로 공교육 혁신 이산신도시마을교육공동체(교육장 김진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학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마을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난 26일, 신도시인 배방읍 용연마을에서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마을 축제기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논산고, 논산시 중학생 첨단과학 기술리더 캠프 큰 호응 논산고등학교(교장조익수)는 지난 26일 ‘과학 꿈쟁이들, 오룡골에서 미래를 감각다’를 주제로 제1회 논산시 중학생 첨단과학기술리더 캠프를 교정에서 운영했다.



예산중학교, 학생오케스트라 전국대회 최우수상 수상 24일 예산중학교교장 김주영) 학생오케스트라는 제42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KBA)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대회는 한국관악협회 함양지부가 주관하였으며, 함양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6일간 실시되었다



대전보훈청·부여충화초등학교와 MOU 체결 대전지방보훈청(청장장윤진)은 28일 부여충화초등학교(교장 윤기호)에서 현충시절 학생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명신 보훈과장(왼쪽)과 윤기호 부여충화초등학교장(오른쪽)이 업무협약식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특성학교·마이 스테고 학생수 현 수준 유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심봉호)은 학생인구 감소의 추세에 따라 특성학교·마이스테고의 학생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 2022년까지 학생비중 24.1%, 취업률 65% 달성 목표 등 직업교육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교육청은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선취업 후진학, 매직학교, 글로벌 현장학습 등 산업현장 적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개편 및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중 특별전형 64.7%의 비율로 전년도 48%에 비해 크게 확대 운영해 신입생을 선발, 소질과 적성 취업을 지향한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8월 29일, 8월 31일 이틀간 오후 2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중학교 3학년 담임 및 부장교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직업교육 이해 연수를 실시한다.

김정환기자

충남교육청, CCTV 설치 위해 약 8억4000여만 원 투입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유아의 안전한 유치원 생활을 위해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505개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100% 설치 완료했으며, 총 6083개 CCTV중 고화질인 200만 화소 설치율은 99.9%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유치원 CCTV설치에 관한 교육부 지침이 130만 화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충남도교육청의 안전한 학교 조성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에 있어 설치시 안내판 설치, 정보주체 동의서를 비치하고, 운영 관리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며 열람 시를 위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와 영상정보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고화질 CCTV 설치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억4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CCTV를 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교실 외 실내 공간(출입구, 계단, 복도, 식당, 강당 등)으로 확대 설치해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 정 ●●●

제2차 본회의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29일 오전 10시에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98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정례 브리핑 주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29일 오전 10시,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례 브리핑' 주제.

민혜 한용운 선사 추모대례제



김석환 홍성군수= 29일 오후 5시 결성만해선생생가시일원에서 제22회 민혜 한용운 선사 추모대례제에 참석.

제35회 춘천전국합창경연대회

예산군립합창단 최우수상 수상

예산군립합창단(단장 김태호)이 지난 26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35회 춘천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춘천시와 강원도 예송이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의 시·군을 대표하는 합창단 총 25개팀(남성·혼성부 13팀, 여성부 12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 군립합창단은 단원 44명(남자 20명, 여자 12명)과 정수정 지휘자가 참가해 'Sanctus from Mass', '세노야'를 응창하면서도 신나는 목소리로 표현했다.

특히 합창단원들은 정수정 지휘자의 지휘 아래 합창단의 특색을 살린 부드럽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는 등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해 기립박수를 이끌어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부분의 단원이 직장인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인 군립합창단은 지난 2004년 5월에 창단했으며 전국 합창경연대회에서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포함해 금상과 동상, 최고지휘자상 등 총 7차례 수상 및 충청남도 대회 대상, 금상, 은상 등 총 11차례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합창단으로서의 진가를 드러냈다.

정수정 지휘자는 "지난 7월 충청남도 합창대회 대상에 이어 이번 전국합창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 기쁘고 그동안 묵묵히 연습에 임해 준 단원 모두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예산군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드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영업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충청유교 광역개발 방안 찾는다

충남·대전·세종·충북도,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충남도와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 등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지역에 산재한 유교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광자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허승욱 충남도 정부부지사, 이현주 대전광역시 정부부시장, 강준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부시장 등 충청권 4개시·도 부단체장과 이종배·이장우·김종민·조승래·이기구·권석장 국회의원 등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뼈대를 이룬 주제발표는 최영갑 성균관교육원장이 맡았다. 최 원장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주제로 충청유교광역개발계획의 경과를 살핀다. 최 원장은 또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향해야 할 개발 방식을 제안한다.

이어 최영진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지두환 국민대 교수, 김용재 성신여대 교수, 최종수 한국유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오석민 (사)지역문화연구소장, 이종수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장인식 우송정보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이들은 충청유교문화의 연원과 본질에서부터 개발의 당위성과 방향, 사업 이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까지 폭넓은 주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충청유교개발계획이 오는 2026년까지 10년 동안 8000

억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추진 의지는 물론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은 국비 3457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947억 원을 들여 지역별로 각종 개발사업(7151억 원)과 진흥사업(796억 원)을 펼친다는 계획

이다. 도 관계자는 "충청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교문화유산들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의 토대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고유한 유산"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각 사업주체들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정한 기자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NH농협

인삼엑스포 상생협력 업무 협약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다음달 21일 개막하는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NH농협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오전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이동필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NH농협은 인삼엑스포 기간 중 NH홍삼으로 국제교역관에 참가하며 인삼요리 경연대회, 수산물평화 등 다양한 행사에 대한 지원

을 아끼지 않고 인삼엑스포 성공개최 후원금 및 입장권 구입 등 총 3억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전국 각지에 있는 농협 영업점을 활용해 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등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인삼산업의 발전, 더 나아가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실질적인 힘을 보태주시는 NH농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우리나라 인

삼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NH농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필 조직위원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전국의 인삼업체가 역량을 결집해 잠재된 국내 인삼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체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간 '생명의 뿌리, 인삼(부제 : 과학과 문화로 세계를 날다)'을 주제로 충남 금산군 인삼엑스포광장 일원에서 전시, 교역, 학술회의, 이벤트, 체험행사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김정한 기자

"버섯파리 피해 예방은 유입 차단이 중요"

충남도농기원, 촘촘한 방충망 설치·점검 당부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버섯파리가 9월 중순을 전후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중순의 버섯파리 성충밀도는 150×250mm 평판트랩 당 37마리로, 전월에 비해 17%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버섯파리의 번식에 유리한 온·습도 조건인 9월 중순경에는 이와 같은 증가추세가 절정에 달해 10월까지 이어지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가에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양송이 재배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긴수염버섯

파리의 경우 버섯파리 암컷 한 마리가 한번 산란하면 약 100여개의 알을 낳을 수 있고 20도 온도조건에서 25일에 성충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25일에 불과하다.

양송이 재배농가에서의 버섯파리 발생은 종균 접종이후 균배양 기간 독특한 냄새에 이끌려 재배사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때부터 버섯파리 밀도가 증가하면서 유충과 성충에 의해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종균접종 후부터 3~4주에 걸쳐 유입된 버섯파리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내 재배농가의 대부분 방충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다,

일부 설치된 농가는 눈금의 크기가 18~22mesh로 몸체가 작고 날렵한 버섯파리에 대한 방충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버섯파리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배사의 출입구와 환기장 등 버섯파리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34mesh(0.5mm)이하의 매우 촘촘한 방충망을 설치해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이병주 버섯팀장은 "버섯파리는 버섯을 직접 가해하고 피해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수확량이 약 20% 이상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며 "성충은 병원성 세균이나 곰팡이를 옮기는 매개충으로 2차적인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방충망 설치와 점검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한 기자

홍성군 남성 육아시대 활짝

아이랑! 아빠랑! 아이와 함께하는 파더스쿨 7회 진행



귀농·취농 유치 적극 홍보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7 AFam Show 귀농·취농 박람회'에 참가해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귀농·취농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동아일보, 채널A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귀농·취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이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며 청장년층의 새로운 도전의 무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기술센터는 이번 박람회에서 귀농·취농 홍보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으며 와인, 칩, 즙, 말랭이 등 사과 가공품과 분화사과(후지) 등을 전시하며 귀농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가공품 등을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널리 알렸다.

특히 군이 사탕팥밭 교통이 편리하고 청정 자연환경과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귀농·취농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군으로 귀농에 성공한 전문 상담 요원을 상주시켜 귀농·취농을 원하는 도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귀농·취농에 지원 정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자료 제공 및 다양한 사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데 힘썼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귀농·취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많은 도시민이 예산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군 유입될 수 있도록 귀농·취농 관련 홍보를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영업기자

홍성군이 인구증가 종합대책 반 출범 등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정책전개에 '육아'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와 함께하는 파더스쿨'의 활찬 출범이 시작됐다. 홍성군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소망어린이집(원장 우영란)에서 올해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파더스쿨'을 시행했으며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와 합심하여 '인구개선교육'과 '놀이교육'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인구개선교육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지원방안, ▲공감과 퀴즈형식을 통한 저출산 문제점과 극복방안, ▲아빠육아 팁과 육아정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놀이교육은 아이와 놀아주고 싶어도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막막한 아빠에게 놀아주는 방법을 자녀와 몸으로 체험해 보며 아빠육아의 중요성 인지와 친구 같은 다양한 아빠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목 체험활동을 가지게 됐다. 직장인 아빠들이 퇴근해 지친 기력이 있을 거라는 우려와 달리 아이와 함께하는 교육 현장은 활발하고, 계속 웃음이 나오는 즐거운 현상이 연출됐다.

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만족도에서는 대다수가 '매우 만족'을 하였으며 차기 교육 참여의 사 응답에는 교육을 받은 아빠 36명 전원이 '참여하겠다'는 설문에도 동참했다.

홍성군수(군수 김석환)는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닌 시대인 만큼 남성분들 역시 직장생활, 육아, 가정행복 등 일석삼초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와 함께하는 파더스쿨'은 8월 ~ 9월 두 달간 진행하며 신청한 어린이집 교육 일자에 맞게 진행된다. 올 9월 19일은 홍성군청에서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되며 미처 신청을 못한 가정에서는 자유롭게 참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홍성=김정한기자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중국 방문길 올라

"양국 관계 개선 새 물꼬 기대"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제2회 한중일 지방정부협력회의 참석과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이번 남궁 부지사의 중국 방문은 도와 오랜 우호협력관체인 길림성(지린성)과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성 강화를 내몽고자치구(웨이멍구)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남궁 부지사는 31일 길림성을 방문해 제2회 한중일 지방정부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길림성은 지난 2005년 도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양 도·성의 국제행사에 고위층이 상호 방문하는 등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방문에서 남궁 부지사는 류귀중(劉國中) 성장을 만나 길림성 정부의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참가를 요청하고 양 도·성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제안한다.

이에 앞선 28일과 29일에는 내몽고자치구를 찾아 아이리화(艾麗華) 부주석과 외사판공실 업무를 맡고,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내몽고자치구는 자원이 풍부하고 목축업이 발달한 중국 내 신흥 발전지역으로, 러시아와 몽골에 연결해 있어 두 나라에 진출하기 용이한 교두보로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내몽고자치구는 아직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가 없어, 이번 방문으로 향후 내몽고자치구와의 우호교류 관계에 서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한기자

홍성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

소규모농가·형체형성을 저조·밀집지역 공수의사동원



전국 최대 축산단지 홍성군이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하여 구제역 사전 차단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홍성군은 구제역 유입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우재류 가족에 대하여 9월 30일까지 하반기 정

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대상은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관내 모든 우재류 가족 69,400여두이며,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족,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족 등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 형체형성을 저조 및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하게 되며, 전업농가의 경우 지정 동물병원에서 백신 구입 후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고령 농가와 같이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는 접종반수의사 포함을 통한 접종도 가능하다.

소규모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배부하여 자부담이 없고 전업농의 경우 홍성축협, 홍성낙협 등에서 백신을 구입하여 사용되면 되고 자부담 50%를 하게 된다.

김정한기자

동정

위촉식



북기왕 아산시장= 29일 오후 3시 상 황실에서 열리는 정책기획자문단 위촉식에 참석.

개회식



김홍장 당진시장 = 29일 오후 2시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열리는 전국 대학생 봉사단 워크숍 개회식에 참 석.

워크숍



한상기 태안군수 = 29일 오전 10시 원북면 발전교육원에서 열리는 발전소 주변지역 관계자 워크숍에 참 석.

수련대회



이석화 청양군수 = 29일 오전 10시 청양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청양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참석.



온양6동 아름다운 꽃길가꾸기 앞장

아산시 온양6동 새마을부녀회도자협의회(회장 박철우, 부녀회장 김영희)는 아름다운 온양6동 조성을 위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10여명이 참석하여 읍내사거리의 가로변 화단 가꾸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가로변 화단의 꽃들이 한창 만발하였으나 잡초가 우거져 잡초를 뽑아주는 행사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의 온양6동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게 배어있는 봉사활동이었다.

또한, 이번 행사로 아산시 대표 관광지인 외암민속마을로 가는 국도 39호선 입구인 읍내사거리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변 화단 가꾸기를 통하여 아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우, 김영희 새마을지도자남녀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원들과 아름다운 온양6동 가꾸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완겸 동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아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아산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한진포구 친수연안 정비사업 본격 돌입

당진시, 23억여 원 투입... 관광객 위한 휴식 공간 2019년 완공

당진 송악을 한진포구에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이르면 2019년 상반기 완공된다.

당진시는 지난 21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총사업비 23억 7800만 원이 투입되는 한진 지구 친수연안 정비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 사업은 조석간만의 차와 협약한 지형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한진포구 연안에 친수공간을 조성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 관광객 접근이 쉽지 않은 한진포구 선착장 좌측을 따라 길이 215미터, 폭 25미터의 해안산책로인 보도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보도교 중간에는 바다 쪽으로 전망대도 조성되는데, 방향이 서해대교와 마주 보고 있어 서해대교 일출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명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한진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을 자질 없이 추진해 목표한 2019년 상반기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한 이후에는 서해대교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일출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매년 5월 바지락 갯벌체험

축제가 열리며 당진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2년 연속 해수욕장 사망사고 없었다

해경·경찰·소방 등 1만8천명 투입 안전교육 홍보 효과 뚜렷



서해안 대표 관광휴양도시 태안군이 2년 연속 피서철 해수욕장 사망사고 제로화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를 실시해 위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안전한 해수욕장 구축을 위해 총 120명의 해수욕장 안전요원을 선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조 자격증을 갖춘 전문 구조대원 비율을 87%(104명)까지 대폭 늘리는 등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해수욕장 운영에 돌입했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응급조치법과 심폐소생술, TRS 사용법 등의 안전체결교육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익수사고에 대비한 긴급구조훈련을 두 차례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요원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온 힘을 기울였다.

또한, 만리포와 꽃지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6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매일 정례 티타임 운영해 각 기관별 업무협조에서 나서는 한편, 통합지휘용 무전기 135대를 단일망으로 운영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해수욕장 내 식품위생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해 과다요금과 청결상태 불량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계절영업업소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및 위생 등에 대한 집중 지도에 나서는 등 관광객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군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 성과와 관광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원캠프 마면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서해안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상기 군수는 "해수욕장 운영에 힘써주시는 서산경찰서, 태안해양국립공원사무소, 군부대 및 번영회 등 유관기관과 안전요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해수욕장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아산시 허가담당관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 위한 간담회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당진시, 전기차 구입 시 최대 2200만 원 지원

당진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당진시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당진시민에게 차량구입비 중 최대 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올해 총 10대의 전기 자동차를 보

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진시에 주소가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당진시에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다.

신청자는 원하는 차종을 선택하고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계약하면

자전거 판매 대리점에서 신청서를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당진 시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신청자가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내달 18일 보조금 심의불거친 후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등록을 완료하고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을 제외한 구매대금을 제조·판매사에 지불하면 시가 제조·판매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태안군 '친환경 자동차 사업 확대'

내달 전기자동차 구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태안군이 전기자동차 구입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군은 내달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동시에 추진키로 하는 등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10대에 총 2억 2천만 원(내달 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종은 아이오닉(현대), 쏘울(기아), SM3 전기차(르노삼성), 볼트(한국지엠), LEAF(한국닛산), i3(비엠더블유)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과 태안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 태안군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 및 기업·기관 등은 태안군 지정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전기차를 구입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9월 5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제조·판매사를 통해 태안군에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추진해 큰 호응을 얻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도 올해 다시 실시한다.

군은 당초 노후경유차 지원 대상 차량 수를 10대로 정하고 지난 2월부터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자가 폭주함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9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재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태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는 등 군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조기폐차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줄어들어 대기질 개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기자동차 구입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http://aean.go.kr) 공고를 확인하거나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33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환기자



"우리 한국말 잘해요"

청양군 다문화가족 우리말 소통대회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소통을 통해 가족의 화합을 다지고 다문화 가족과 지역 사회의 융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 29일 청양복지타운 1층 대강당에서 이석화 청양군수, 이종순 청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우리말 소통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겪은 소중한 경험들을 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가족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발표는 자유주제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들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수기 및 편지쓰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어머니, 남편, 자녀들까지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그동안 못했던 마음을 표현해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등 다문화 가족의 희노애락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 자리에서 이석화 청양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 간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기고 포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대치면 전 직원 민원친절교육 실시

청양군 대치면(면장 이우만)은 28일 전 직원 대상으로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친절서비스 향상'이라는 주제로 방문 민원인에 대한 맞이, 처리, 배웅의 단계별 응대요령과 전화응대요령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위주로 실시했다.

이러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좋은 사례와 좋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민원사무처리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으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직원들의 결의문 낭독 및 서명에 의한 실천다짐을 끝으로 교육을 마쳤다.

이우만 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각자의 민원대응태도에 대해 돌아보게 됐으며, 앞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처리에 임해 모든 주민에 만족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농특산물 추석맞이 대도시 관측

부여군 굿뜨래, 9월 한달간 서울·대전·세종 등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부여군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굿뜨래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관측행사에 나섰다.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최고의 품질과 경쟁력을 자랑하는 굿뜨래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추석연휴 전인 28일까지 서울과 대전, 세종 등 대도시를 찾는다. 먼저 1~30일 금, 토에는 5개 농가에서 15개 품목을 선보이고, 2일부터 매주 토요일 9월 한달간 '충청남도 로컬푸드 푸트림상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 달하산, 옥경식품, 와보라, 송진당 등 6개 부스에서 굿뜨래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9월 20~28일 기간 중 대전, 서울청사에서 각각 3일 동안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시작으로 2일~23일 세종시 로컬푸드 상시장터, 24~27일 서울광장, 무교로 일원에서 열리는 추석명절 서울장터에 차례로 참가해 관측활동을 벌인다. 이어 22~24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6회 충청 명품 특산물 대축전 참여에 굿뜨래 홍보사업단이 참가해 굿뜨래 10미 및 가공식품을 선보이며, 9월 28일~10월 5일까지 백제문화재 직거래 장터에도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군은 굿뜨래 로컬푸드를 비롯하여 다양한 가공식품 등 품질이 뛰어난 우수 농산물을 염선해 굿뜨래 브랜드 파워를 과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수도권 자매결연단체를 중심으로 굿뜨래 농식품 마케팅 활동을 펼쳐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 만큼 이번 직거래 장터에도 큰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봄의 마을에서 행복 나눔장터 열려

서천군, 근검절약의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

행복나눔장터는 재활용품 등을 기증·교환·판매하는 나눔의 장으로 군민의 자율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근검절약의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자원센터 및 서천군 여성단체에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색소폰 연주(김상덕), 싱어송라이터 윤성용(산드&용티)의 노래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행사를 진행하여 폐건전지 10개를 가져오면 새건전지 2개를, 우유팩은 1kg당 휴지1롤을 교환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장난감·도서·의류·생활용품·잡화류 등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 중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교환·판매 하면 된다. 참여방법은 행사 당일 참여등록 후 판매가 가능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041-950-4095)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김태선기자

대학생 국외 연수 결과보고회 열려

계룡시, 국외연수 추진경과 및 성과 공유 시간 가져

(재)계룡시해양종합회(이사장 최홍묵)가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7년 대학생 국외 연수 사업 추진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연수 장학생과 가족, 장학회 임원 및 교육 관계자와 시민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연수 장학생 소감 발표, 연수 UCC 시청, 사업성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계룡시에서 시행하는 첫 국외 교육사업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이번 국외 연수는 필기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12명의 장학생들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간 싱가포르 DIC 대학(DIMENSIONS International College)에서 영국, 캐나다 원어민 교수의 영어수업에 참여하였다. 또 공공 도서관 견학, 캐논 동남아시아 분부 방문, 자원봉사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날 보고회에서 "연수 수업시간에 영어를 배우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인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을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장학회 관계자는 "계룡시의 많은 학생들이 국외 연수를 통해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직업 트렌드를 체험하고 발전적인 선진문화를 직접 경험·체득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軍문화축제 · 지상군페스티벌 준비 착착

D-40일 시와軍 안보축제 인식 한마음 · 행사준비 재점검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이사장 최홍묵)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17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개최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10회째를 맞는 계룡軍문화축제는 '놀이 軍! 즐겁 軍! 자랑스럽 軍!'이라는 주제와 'Enjoy in Gyeongsang' 계룡에서 즐기라 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다고 밝혔다. '2017계룡군문화축제'는 계룡 대학주와 함께 지난해 금강행사장 행사가 성공적이었던 평에 따라 올해도 금강행사장(홍플러스 앞~금강 4가)을 마린 화합의 전야제와 육·해·공 어울 공연 등 8개 분야 총 37종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재단은 축제 개막 40일 앞두고 29일 계룡시청 상황실에서 시·과·소장 및 주무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계룡軍문화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점검해 나감 예정이다. 이날 열릴 보고회는 ▲軍문화축제 행사개요 ▲행사장 구성계획 ▲홍보계획 ▲軍문화축제 세부 프로그램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단은 올해 軍문화 정체성 강화



와 2020년 엑스포 대비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국가합창단 초청 공연 ▲육·해·공군 해병대, 미8군 군악·의장시범공연 ▲제2회 계룡 밀리터리댄싱경연대회 ▲시가지 전투 퍼포먼스 공연 등을 준비중에 있다. 또 지역 역사·문화자원 발굴 프로그램으로 ▲이성계 어가행렬 퍼레이드 ▲퓨전 창작극 '왕대리락' ▲계룡이 나르샤 ▲계룡산 안보등반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화합 및 장병, 군인가족을 위한 ▲국군장병 위문편지쓰기 ▲엽사 프린지 페스티벌 ▲시민단체 예술공연 '판' ▲거리예술 공연 '즐겁 軍' 프로그램 등 대위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프로그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재단은 오는 2020년 엑스포 개최를 대비하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부서별 책임운영제'를 도입, 프로그램 및 교통·안전 분야 등 6개 분야를 구분하여 부서별 계획부터 실행까지 책임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듣듣'한 육군, 국민과 함께, '호뭏'한 축제를 컨셉으로 개최 될 제15회 지상군페스티벌 행사는 '듣듣' 프로그램으로 ▲자랑스런 육군 ▲민중적인 육군 ▲미래로 나아가는 육군을 주제로 총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함께' 프로그램으로는 ▲오랜 친구 육군 ▲도전, 특급전사 ▲ROKA 드론 축제 ▲Wego together

▲Thank you soldiers ▲육군 서포터즈를 주제로 총 21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다. '호뭏' 프로그램으로 ▲Fun한 ROKAnival ▲미래 육군 주인공의 장을 주제로 16개 프로그램 총 48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아심차게 준비해 국민들 품으로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시(계룡軍문화발전재단)와 육군본부(지상군페스티벌행사기획단)는 올해 안전하고, 교육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행사장 구성계획 ▲지난해 문제점 개선보완 ▲홍보계획 등 상호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아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한 Win-Win 행사로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라 밝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 3軍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계룡시를 널리 알리는 한편, 육군을 믿고 이해하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축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한 몫 기여할 수 있는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홍묵 시장은 "오는 10월 8일 '공동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 청소년과 국민에 대한 안보태세 확립과 교육의 명품축제를 위해 주강과 이간으로 이원화하여 방문객들이 하루코스 나들이 장으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여농기센터 '귀농인 희망센터' 조성 순조

충21억원 사업비 투입..현재 75% 공정률 오는 11월개 완공예정

부여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석우)이 도시민 농촌유치 전국 제일의 '귀농하기 좋은 부여' 조성을 위해 건립 중인 '귀농인 희망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건립되고 있다. 남면 송학리에 자리 잡은 귀농인 희망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시 거주지를 임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실습을 한 후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비 7억원, 군비 14억원 등 총 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귀농인 희망센터는 3층 규모의 원형형, 투룸형 등 10세대 거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5% 공정률로 오는 11월개 완공해 12월중 입주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군은 귀농·귀촌 과정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 거주지라고 판단하고, 정착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주거지를 지원하여 이주의 부담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내달 9월부터 귀농귀촌 박람회, 설명회 행사, 서울귀농귀촌센터 사이트 등을 통해 귀농귀촌센터 입주자를 홍보하고, 12월 입주자 모집과 함께 내년도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도움 교육과 연계해 입주자의 영농교육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서천군 온통 해바라기 생각 뿐 농촌어르신 가공식품 개발 도전

농업기술센터, 농촌어르신들, 독특한 해바라기 가공식품 개발

잔잔한 서천군 관교면 서부저수지를 끼고 구불구불 들어가는 조용한 농촌 길의 끝에 활짝 웃고 있는 꽃들이 반긴다. 바로 해바라기 꽃이다. 지난 7월 해바라기 축제가 열린 흥립2리 마을이다. 지금은 메밀이 가득한 흥립2리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고령 인구의 비율이 50%이상으로 높다. 그렇지만 마을 곳곳에 활력이 넘쳐난다. 특히, 흥립2리 어르신들은 고노동력의 밭작물 대신 해바라기를 공동재배하여 가공식품을 개발 상품화하면서 마을에 생기가 넘쳐났다. 이는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저장도 노인공동체 소득 활동 및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추진한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교육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해바라기 가공상품화 교육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농촌어르신들의 보유솜씨

논산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민원처리 속도 '빠름빠름'

최신 공간정보 구축·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 동시 제고

논산시(시장 황명선)의 신속·정확한 지리정보 민원처리속도가 'LIFE급'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리정보 민원서비스를 위해 2016년 촬영한 최신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공간정보시스템(GIS)과 항공사진관리시스템에 탑재해 종전보다 더 빠르고 쉽게 지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적민원, 재산관리, 도시건축, 산림·

부여=이정복기자

통정

협약식

구본영 천안시장은 29일 오전 10시에 신방체육관에서 제 7회 노인지회장배 한국대학에 참석하고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개통식

황명선 논산시장은 29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 역량 발표대회에 참석, 오후 4시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개최되는 동고동락 행복버스 개통식에 참석.

계룡예술제

최홍묵 계룡시장은 29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계룡군문화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참석, 오후 4시 30분, 오후 7시 염사네거리에서 열리는 국악협회 국악공연 및 제9회 계룡예술제 참석.

위촉식

노박래 서천군수는 29일 오전 11시 다드림 로컬매장에서 열리는 서천시니어클럽 '다드림 로컬매장' 운영 간담회에 참석,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천군노인복지향상을 위한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5시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기 군민평가단 위촉식에 참석.

부여설명회

이용우 부여군수는 29일 오후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리는 충청여행사 부여설명회에 참석.

비정규직 ZERO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

천안시, 대상자 321명 정규직 전환 추진

천안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대상자 321명에 대해 올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신속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향후 업무 신선했 결원 발생으로 채용이 필요할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해 비정규직 ZERO시대를 열기로 했다. 현재 각 기관(부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방식 및 기준 등을 마련, 심의회의 결의를 통해 전환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역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 기구 구성 등을 통해 갈등 상황을 최대한 조율하고 원만하게 정규직 전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자들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합한 명칭 부여 등 체계적 인사관리 및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시 산하 기관과 함께 정규직 전환절차, 예산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산하기관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을 모두 미치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에 대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향후 지역의 민간부문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구본성기자

특정

노인의 날 기념 실버예술대회



오시덕 공주시장= 29일 오전 9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의 날 기념 실버예술대회에 참석하고, 오전 10시 웅진공원에서 열리는 공내부 파크골프장 준공식에 참석하며, 이어서, 백제체육관에서 열리는 공주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참석.

민원상담의 날 운영



김동일 보령시장= 29일 오전 10시 노인회지회 대강당에서 열리는 노인대학 개강식,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사랑의 헌혈 운동 약정 체결식, 오후 2시 시장실에서 민원상담의 날 운영.

서산시 마을학교 문해백일장



이완섭 서산시장은 29일 오후 1시 40분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리는 서산시 마을학교 문해백일장에 참석, 오후 3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및 시민회의에 참석.

홍범식 군수 추모제향



박동철 금산군수= 29일 오전 11시 조종산서 열리는 홍범식 군수 추모제향에 참석.

금산세계인삼엑스포 D-30기념행사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이동필은 지난 29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일원에서 수천명의 야구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성공기원 D-30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행사에는 이동필 조직위원장과 허승욱 충남도정부부지사, 박동철 금산군수를 비롯한 충남도의회 엑스포지원특위위원, 금산군의원, 범군민지원협의회, 대전지역 금산향우회, 금산군 사회단체장, 홍보대사 및 홍보위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대표소 앞 야외무대에서 신인 여성그룹 베베시스의 K-POP 댄스공연을 시작으로 사전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무대 옆 부스에서는 무더위에 지친 관람객들에게 시원한 홍삼슬러시를 제공해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메인행사로 참석 내빈들이 준비된 대형피자에 인삼으로 토핑하고 커팅기로 잘라 손수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인삼 피자 나눔 행사'를 진행해 호기심 어린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아 성황을 이뤘다.

메인행사에 앞서 이동필 조직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주고 있는 한현택 대전동구정장, 건양사이버대학교 김미주 교수, 국악인 고희임씨 등 총 24명의 홍보대사 및 홍보위원을 위촉해 엑스포 사전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이날은 한화이글스 대 KIA타이거즈와의 프로야구 경기에 앞서 박동철 금산군수가 엑스포 성공기원을 담은 힘찬 시구를 선보여 수천명의 야구 관람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동필 조직위원장은 "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줘야 하는 만큼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D-30기념행사 준비했다"며 "오는 9월 개막하는 인삼엑스포 행사장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간 '생명의 뿌리, 인삼(부채) : 과학과 문화로 세계를 날다'를 주제로 충남 금산군 인삼엑스포광장 일원에서 전시, 교역, 학술회의, 이벤트, 체험행사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서산시 한다리마을서 전통문화의 보존·계승의 장으로 거듭

市 한다리권역종합정비사업 준공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에 위치한 한다리마을이 전통혼례 등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의 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시는 전통문화자원의 활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한다리권역종합정비사업'이 준공됐다고 밝혔다.

한다리 마을은 서산에서 홍성·예산 지방을 왕래하기 위해 놓인 한다리(大橋)에서 이름이 유래된 자연마을이며, 여기서 집성촌을 이룬 경주김씨도 '한다리김씨'라 불리기도 한다.

또 한다리마을에는 정승왕후생가, 김기현 가옥 등의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해 있고 한다리교백옥악회 등 지역문화행사도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농촌의 새로운 체험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한다리권역종합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2013년도에 농림축

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확보된 국비 19억여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7억 4,800만원이 투입됐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시는 지역 주민 16명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적극 참여 시켰다.

시는 2015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문화재현상변경,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28일 준공식을 갖게 됐다.

이곳에는 각종 복지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이 모여 전통문화사업을 진행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한다리센터와 전통혼례, 음악회 등의 문화행사가 열릴 한다리전통광장이 들어섰다.

마을소공원 조성, 전통지붕개량, 소나무길·마을안길 정비, 권역안 내관 설치 등의 지역경관사업도 이뤄졌다.

앞으로 시는 정승왕후 등을 주제로 리플릿, 스토리북 등을 제작하고 전통혼례 등의 전통문화체험행사를 진행하며, 이를 토대로 관공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역량교육과 표고버섯 포장 패키지 개발 등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사업의 준공으로 한다리마을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대표의 전통문화마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광상품 개발,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우리/동네

금산농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 호응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금산군은 8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 A1센터에서 열린 2017 A Farm Show 농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장년을 상대로 적극적인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박람회는 분산 개최되고 있는 귀농귀촌 박람회, 농식품일자리 페어 등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농식품 분야 취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됐다.

금산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귀농인 생산 농산물인 새싹쌀, 갯잎, 찹쌀소 등 전시 및 상담부스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멘토제, 현장코디 운영 등의 정책을 홍보했다.

금산군 농업여건과 비단피, 세계인삼엑스포 등 귀농하기 좋은 고장임을 알리고, 귀농 시책 및 귀농교육센터,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도우교육, 농가 숙박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금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박람회 참여 경험이 풍부한 우수 귀농선배도 박람회에 참여해 귀농체험이야기, 작목에 대한 정보 등 귀농전반의 현실적이면서도 다양한 사례 상담으로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금산군이 귀농·귀촌 1번지로서의 역량을 다지고, 금산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부각시켜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조성된 체류형 귀농교육센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전정만 기자

공주시 주민세 납부 캠페인 전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등 납부내 성실납부 풍토 조성

공주시시장 오시덕은 지난 25일 퇴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세 납부 홍보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을 앞두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청 세무과 직원 2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세 납부 홍보 현수막과 어깨띠, 피켓, 납부 안내문 등을 활용해 주민세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과 납부후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시는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

(ARS ☎1899-2777)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난원 세무과장은 "주민세를 포함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등의 납부 내 성실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 지방세 납부 홍보 캠페인을 적극 펼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9)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성범기자

미세먼지↓ 그린에너지↑ 청정화력 융합클러스터 시동

보령시,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보고회

보령시가 청정에너지 연관 기술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을 위해 청정화력 융합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2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충청남도·시 관계 공무원, 한국중부발전(주) 및 협력사,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화력 융합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신 기술 체제를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확보와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필요성의 증가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집적지를 청정화력 단지로 전환, 친환경 에너지융합 산업벨트 조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청정화력발전은 저급연료 등 연료변화, 기존 화력발전 대비 고효율 및 CO2 저감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 시는 지난 2011년 정부의 제2차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과 2014년 제3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에 발맞춰 에너지 기술의 융복합 혁신과 기후변화·에너지 위기극복의 그린에너지 보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보령발전본부는 석탄화력 8기, 복합화력 9기, 소수력 등으로 설비용량 5358MW를 갖춰 연간 55백만 MWh를 생산하고 있고, 신보령발전본부는 2000MW를 갖춰 기존 설비의 노후화와 탄소절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고효율, 친환경적인 청정화력발전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화력발전 기반

설비가 갖춰진 보령시에 청정화력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친환경에너지 산업벨트 구축의 호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여건 등 현황조사를 분석하고, 수요조사 및 유입업종 선정,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술·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검토해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충남 지역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개소 중 약 26개소(49%) 밀집하며 전국 화력발전소 전략생산량의 40.6%(1960만kw)에 이르고 있고, 보령도 보령발전본부와 신보령발전본부, 영보일 반산단 내 LNG 터미널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 전국 에너지 생산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석탄화력발전 감소의 에너지 정책변화 시대를 맞아 친환경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은 필수로, 국가산업단지조 조성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명확하게 조사해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서산시, 북한이탈주민 제2회 명랑운동회 개최

소통의 장·통일의 바람 불어

서산시 서산석림사회복지관관 장 이육이 서산석림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제2회 명랑운동회'가 지난 26일 개최됐다.

"해트는 서산에서 통일바람이 분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이완섭 시장을 비롯해 구세군 서해지방관, 우중재 시의회장, 유관기관 회원과 북한이탈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처음 열린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부채에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서로 몸을 부대끼고 화합하며 즐겼고, 장기자랑에서는 다양한 끼를 발산하는 무대를 만들어 소통의 장을 만들어 통일의 바람이 불게 하는 행사였다.

아울러 어린이 재활병권전립을 위해 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기

적의 새싹' 운동의 동참을 위해 남북여성이 함께하는 행복봉사단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든 수제수세미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육 관장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 그들과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작년에 다시 모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고 밝혔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명랑운동회를 통해 유쾌하고 행복한 날이 펼쳐졌다"며 "남북통일 앞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통일이 됐던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공주산성시장 새 시장문화 만들어

공주산성시장 문화축제 성료

공주시시장 오시덕은 지난 26일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시민과 관광객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주산성시장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공주시가 주최하고 공주산성시장상인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 지역 상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잔치를 펼쳤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백제문화재 성공 개최에 기여하고자 마련

됐다.

1부 가래떡 나눔잔치에서는 쌀 세 가마(240kg)로 만든 가래떡을 시민과 상인이 함께 이어받는 퍼포먼스와 함께 가래떡을 나눠먹으며 시민과 상인 간 화합과 시장 발전을 기원하는 만세를 불렀다.

2부 공주시민 노래자랑은 타악퍼포먼스팀 하느노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 노래자랑 및 축하공연이 펼쳐져 흥겨운 여름밤을 선사했다.

특히, 공주밤마실 야시장과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축제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축제에 참여한 시민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오시덕 시장은 "공주산성시장 시장문화축제는 시민과 상인이 함께 어우러진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공주 밤마실 야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장 안에 다양한 문화공연 및 콘텐츠를 연계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찾고 즐길 수 있는 시장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20분)



달님은 세나가 재회... 달님은 세나가 재회의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자신도 그 자리를 빼앗고 싶어진다...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

방에 누워있는 은솔(염채영)을 보고 기겁하는 정욱(최명민)... 태성(임호)은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실

케이블 명화

썩리쳐 (OCN 오전 8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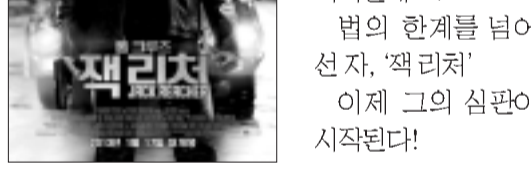
<썩리쳐>는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저격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이 결백을 주장하며 지목한 단 한 사람 '썩리쳐'가 사건 해결을 위해 홀로 나서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시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탄생시키고자 했던 원작자 리 차일드에 의해 완성된 '썩리쳐'는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비밀스런 인물이자 자유로우면서도 철두철미하고 거친 동시에 감성적인 캐릭터

도심 한복판, 6명의 총성과 함께 5명의 시민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현장의 모든 증거들이 한 남자를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하지만, 그는 자백을 거부한 채 '썩리쳐를 데려오라'는 메모만을 남긴다. 전직 군 수사관 출신이지만 실제 정체를 아는 이는 누구도 없는 의문의 남자 '썩리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그는 모든 정황이 완벽해 보이는 사건에 의문을 품고 홀로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나서는데...

범의 한계를 넘어선 자, '썩리쳐' 이제 그의 심판이 시작된다!



종 신고를 하고, 먼저 은솔을 찾으려 병원을 찾아가다. 분이(김영옥)는 깨어나지 않는 은솔을 위해 수련 중인 중기(배도환)를 찾아가고, 태성은 본격적으로 은솔을 찾기 시작하는데...

별별며느리 (MBC 오후 7시55분)



믿었던 도끼 명자(김정은)는 금별(이주연)의 생리도벽을 숨기려다 소희(윤희경)에게 발각되고, 영애(조경숙)는 은별(함은정)이 절도죄 처분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무뢰한 (채널 CGV 오후 4시20분)

형사와 살인자의 여자, 극단의 남녀가 만나 만들어내는 하드보일드물로 상처 위에 또 상처, 사랑이라는 감정의 맨 얼굴 <무뢰한> 목표와 달리 서로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는 두 남녀.

형사, 살인자의 여자를 만나. 범인을 잡기 위해선 어떤 수단든 다 쓸 수 있는 형사 정재근(김남길)은. 그는 사람을 죽이고 잠적한 박준길(박성우)을 쫓고 있다.

그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는 박준길의 애인인 김혜경(전도연)이다. 재근은 정체를 숨긴 채 혜경이 일하고 있는 단란주점 마카오의 영업상무로 들어간다.

하지만, 재근은 준길을 잡기 위해 혜경 곁에 머무는 사이 퇴폐적이고 강해 보이는 술집 여자의 외면 뒤에 자리한 혜경의 외로움과 눈물, 순수함을 느낀다. 오직 범인을 잡는다는 목표에 중독되어 있었던 그는 자기 감정의 정체를 모른 채 마음이 흔들린다. 그리고 언제 연락이 올 지도 모르는 준길을 기다리던 혜경은, 자기 옆에 있어주는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서산시 종합운동장 야외 물놀이장 성료

31일간 4만 3천여명의 어린이 무료 운영하며 성황리 폐장



서산시 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이 지난 27일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31일 간의 운영을 마쳤다.

이와 같은 인기의 비결은 대규모 워터파크나 물놀이장에 비하더라도 손색이 다양한 편의시설과 놀이기구를 갖추고 무료로 운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찾았던 이유가 됐다. 또 물놀이 전·후 이용객 전원이 샤워터널로 입·퇴장하도록 해 피부질환 및 깨끗한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했다.

특히 물놀이 전 준비운동을 위해 참여하는 어린이 모두가 함께 준비운동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장 주변에 셰이퍼트 존을 설정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석봉 체육진흥과장은 "여름철 최고의 가족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야외 물놀이장의 올해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 더 좋은 시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MBC 드라마 '병원선'

하지원 단독 포스터 공개



'병원선'이 오는 30일 첫 방송을 앞두고 완벽주의 외과의 송은재 역을 맡은 하지원의 단독 포스터를 공개했다.

믿고 보는 배우 하지원과 아직도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돼있는 명품 메드(메디컬) 드라마를 탄생시켜온 MBC의 만남이 시너지를 기대케 한다.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이 공개한 포스터에는 망망대해에 깔린 석양을 바라보는 하지원과 '목숨보다 감동적인 것을 앓다'는 카피가 어우러져 있다.

경쟁과 이기는 거연 익숙하지만 인간적 교류에는 영 소질이 없다보니 진짜 친구도 없는 송은재가 병원선에 탑승한 이후 섬마을 사람들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 교류를 경험하며 의사로서 진짜 신념을 가진 의사로 성장해나갈 이야기를 포스터에 담았다.

'병원선'은 배를 타고 의료활동을 펼치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의사들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섬마을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소통하며 진실을 처방하는 진짜 의사로 성장해 나가는 휴먼어릴랜드메디컬 드라마. 한편, '병원선'은 오는 30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광고문의 (042)538-3030

케이블 & 위성방송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 schedules.

'이웃집스타' 9월 21일 개봉 확정...메인 포스터 공개

한채영과 진지희의 코믹 모녀 변신으로 화제



한채영과 진지희의 코믹 모녀 변신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웃집스타>가 오는 9월 21일 개봉 확정과 함께 웃음 가득 실은 메인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했다.

미 모녀 스캔들 <이웃집스타>가 오는 9월 21일 개봉을 확정했다. 또한 개봉 소식과 함께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메인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이웃집스타> 메인 포스터는 "톱스타엄마, 악플러 딸 터지면 짜장!"이라는 커피에서도 알 수 있듯 매번 이슈가 되는 '해미'와 그녀의 옆집에 사는 딸 '소은' 캐릭터와 그들의 수상한 관계에 집중해 더욱 흥미를 자극한다.

비주얼에서는 그 분위기가 더욱 잘 느껴지는데, 선물 상자를 들고 해맑게 웃고 있는 '해미', 그녀를 한심한 듯 쳐다보는 '소은', 그리고 그들이 으르렁 거리는 동안 집 앞이 물러가는 기차들과 카페라의 모습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코믹 모녀 스캔들"이라는 "대박사건"에 대해 (주말)재밌코리아 | 감독: 김성욱 | 출연: 한채영, 진지희, 김보미, 안지환, 임형준, 솔비 그리고 임슬옹

스캔들 메이커 톱스타 '해미' 한채영 분과 '우리 오빠'와의 열애로 그녀의 전담 악플러가 된 여중생 '소은' (진지희 분)의 한 집인 듯 한 집 아닌 이웃살이 비밀을 그린 코

며 서서히 '웃음'에 시동을 건다. 옆집에 살며 남편 뜨면 티격태격하는 "스캔들 메이커 톱스타", "딸 끼증만 악플러". 하지만 또다시 악한 개봉 소식과 함께 관객들의 시선으로 대면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해미'의 스캔들 때문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들어 "한 집 인 듯 한 집 아닌 비밀 동거"를 하고 있는 모녀 관계였다. 장면이 보여지며 이야기는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는 '해미'와 '소은', 그리고 특종을 노리는 '김 기자' (임형준)를 쫓는 '소은'의 모습 등은 시종일관 유쾌하게 그려져 있어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 만든다. 또한, 한채영, 진지희에 대한 코믹 연기 활약도 엿볼 수 있다.

리얼한 표정 연기는 물론, 몸을 사리지 않는 몸개그는 연기 변신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이처럼 마지막까지 웃음을 멈출 수 없는 메인 예고편을 공개한 <이웃집스타>는 9월 극장가를 유쾌하게 물들일 전망이다.

개봉 확정과 함께 메인 포스터 & 예고편을 공개하며, 극장가 웃음 사냥에 나선 코믹 모녀 스캔들 <이웃집스타>는 오는 9월 21일 개봉 예정이다.



가지시줄다리기, 서울시민의 화합을 잇다 당진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가지시줄다리가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개최된 2017 광진구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대전 유성구 원신동 방위협의회, 향방훈련 예비군 격려 대전 유성구 원신동 방위협의회(위원장 조범준)는 28일 향방작계 훈련 중인 원신동대를 방문, 생수 420병과 안전조끼, 신호봉 등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한밭대기술지주(주) 독특한 연구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한밭대학교기술지주(주)(대표 최종인 교수, 경영회계학과)는 최근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성과도출을 돕는 '연구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이한우)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공주소쟁이마을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過)의존을 치유하고 건강한 가족기능을 돕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를 개최했다.



온양문화원, 문화탐방 실시 온양문화원(원장 정중호)은 지난 28일, 아산 시민을 대상으로 경성남도 가이산 해안로 제 198차 문화탐방운영을 실시했다.



한남대, 카페에서 '오픈힐링 1대1 전형상담' 화제 한남대 입학사정관실이 카페에서 고3 수험생들과 입시상담을 진행하는 '오픈힐링 1대1 전형상담'을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남대는 1차로 지난 26일 서산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지역 고등학생 100여명과 학부모, 고등학교 선생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대1 전형상담을 진행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

지난 8월 25일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발명경진대회' 시상식에서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에서 박세용, 김호중군이 각각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상(금상), 대한변리사회 장상(동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청소년발명경진대회는 21세기를 리드하는 지식정보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바탕으로 특화된 인재양성촉진을 위한 발명대회로써, 지식재산권의 일상 생활화 유도도 물론, 지식경쟁력을 갖춘 미래 산업사회의 주역이 될 창의발명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지식재산 강국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경진대회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상은



'긴급 차량이 교통신호 사거리의 신호 체계를 제어하여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IoT 기술과 융합된 시스템'을 개발한 정보통신시스템과 박세용군이, 대한변리사회상은 '친구들과 여행할 때 차 시간에 늦는 사람이 발생하여 버스를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개워주고 상기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한 아이디어 발명제품으로 정보통신시스템과 김호중군이 각각 수상했다.

SW 분야에 대한 이론과 현장실무 중심의 기술을 습득하는 정보통신시스템과에서 배출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는 입학지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100% 충원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년 연속 80%이상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술인 양성을 위해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적응 능력을 쌓아 취업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을 이어나갈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한국폴리텍 대전캠퍼스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네트워크 지능(NI) 등의 핵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미래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대학이 되고자 한다.

이정복기자

● 동정 ●●●

공주시 하계수련대회



유재문 새마을지도자총청남도협회장 = 29일 오전 10시30분 백제실내체육센터에서 열리는 공주시 하계수련대회에 참석 격려.

청양군 하계수련대회



임동규 총청남도새마을회장 = 29일 오전 10시30분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청양군 하계수련대회에 참석 격려.

국립공주박물관, 가을 문화행사 한기둥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규동)은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를 통한 여가활동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개관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야간개장을 시행하고 있다.

9월에는 토요일에만 상영하던 가족영화를 일요일까지 확대하여, 매 주말마다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세익스피어의 비극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라이온킹 II 등 7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쁨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토이뮤지컬 '목수장이 엘리'가 16일(14시, 16시)에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또한, 다가오는 10월과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가을문화축제(9.30.~10.3)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주=정성범기자

창단 1년만 전국대회 준우승 쾌거

서구이글스, 전국 대회 준우승과 4강 진출 쾌거 '화제'



창단 1년만에 대전 서구이글스(감독 연경희 코치 박상규 한화이글스 출신)가 전국 대회 준우승과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올린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유소년연맹이 주관한 '2017하늘내린인제 전국유소년 야구대회'는 지난 8월 4일부터 8일까지 여분방학동안 강원도 인제야구장 등 7개구장에서 치러졌다. 전국에서 91개팀 1200여명 선수들이 참가한 대회에서 대전 서구이글스는 2개리 그윽소년리그 초5~초6(꿈나무리그 초3~5)에 출전 유소년 리그는 4강진출 꿈나무 리그는 준우승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가 놀라운 것은 팀 창단 1년만에 올린 성적이기 때문에 향후 선수들의 성장만장 해준다면 대어급 선수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수선수상을 받은 봉산초 박종성과 둔산초 조승원은 5학년이기에 때문에 향후 기본기를 탄탄히 한다면 야구스타의 자질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경희 서구이글스 감독은 "선수들이 그동안 잘 따라와 주고 열심한 결과이다 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수 있도록 즐겁게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종태 서구청장은 "1년이 짧은 기간이지만 선수와 학부모 및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자랑스럽다. 선수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며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 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수 있다

실제로 우수선수상을 받은 봉산초 박종성과 둔산초 조승원은 5학년이기에 때문에 향후 기본기를 탄탄히 한다면 야구스타의 자질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경희 서구이글스 감독은 "선수들이 그동안 잘 따라와 주고 열심한 결과이다 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수 있도록 즐겁게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종태 서구청장은 "1년이 짧은 기간이지만 선수와 학부모 및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자랑스럽다. 선수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며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 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청양군 정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드럼교실

청양고추·구기자축제 공연 준비 구슬땀

청양군 정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드럼교실

정성근 정산면장은 "우리 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역 축제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 감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산면 드럼교실은 2015년 개설돼 3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일주일 1회씩 운영되고 있다.

김성근 정산면장은

"우리 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역 축제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 감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산면 드럼교실은 2015년 개설돼 3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는 가운데 일주일 1회씩 운영되고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중국 도문시 제2소학교 방송실 개국식

대전시새마을회, 한재득 회장 비록 구 단체장등 10여명 참석

한재득 대전시새마을회장은 새마을회장단과 이사 및 구 단체장 등 10여명과 함께 지난 25일~29일까지 4박5일간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정부를 방문, 장항욱 도문시 부시장, 정명호 국장과 도문시제2소학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문시제2소학교 방송실 개국식을 실시했다.

도문시제2소학교는 도문시에 유입한 조선족학교로서 1926년 광진사립학교로 개교하여 1970년 도문시제2소학교로 개명후 100여년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초등학교로서 조선족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방송장비 및 시설을 새롭게 갖추고 개국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중국 도문시 새마을협력사업은

2012년부터 대전광역시 새마을회와 중국 도문시에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월청진 수남촌 마을회관 준공, 흥범도장군 마을벽화그리기, 마을전통우물 등을 설치하여 공동체식 함양에 기여하였고 2015년, 2016년에는 월청진 유치원 마 을올타리설치작업을 실시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바있다.

한재득 대전광역시새마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의협력사업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새마을정신을 전파하여 도문시 발전과 우리민족인 조선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탕정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아산시 탕정면 주민자치회(회장 한종태)는 지난 25일, 제6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탕정면민의 화합과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개최하는 큰 행사이다.

오세현 부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식전행사인 풍물공연부터 열

기를 더했으며, 의식행사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공모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발표회 행사 개최와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를 선보여 주민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본 행사에서는 합창, 방송댄스, 발레, 댄스 등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지난 1년간 구슬땀을 흘리며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뜻깊은 자리로 전개됐다.

아산=리량주기자

총남대병원 강예은 교수

대한감상선학회 추계 학술대회 학술상 수상



총남대학교병원(원장 송민호) 내분비내과 강예은 교수가 지난 26일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7년 대한감상선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부왕/자립 학술상을 수상했다. 강 교수는 세포막 수용체 단백질인 GPR48/LGR4가 갑상선암에서의 신호전달체계 및 역할을 처음으로 규명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송병배기자

기고



이창호 대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헤이그 특사”

올해 2017년은 보재 이상설이 순국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 '보재 이상설'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갇웃거릴 것이다. 설령 이상설을 안다고 하여도 헤이그 특사의 일원 정도라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를 세웠던, 독립운동사에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 선명히 기록되어야 할 독립운동의 목보적인 선구자이다. 1870년 충청북도 진천에서 태어난 이상설은 시대를 뛰어넘는 냉철한 지성을 지녔던 독립지사다. 이상설은 10대 시절부터 당대의 엘리트(이시영, 이회영, 이범석, 서만준, 조

보재 이상설 순국, 100주년을 즈음하여

한평, 여규정, 여조원, 이회종 등들과 함께 학문을 연마했는데, 그들이 익힌 학문은 한문, 수학, 영어, 그리고 새로운 학문인 경제, 법률, 철학 등 거의 모든 과목이었다.

이상설은 25세 되던 해에, 조선 조 최후의 과거인 갑오문과에 급제하였다. 만약 이상설이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일신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위해 쏟았다면 그는 아마도 일생을 평안하게 지냈을 것이다. 또한 그의 후손들 역시, 선대가 남긴 유산으로 대대로 권문세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늘 정도(正道)를 지키며 끝까지 치열하게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와 싸웠다.

그러한 보재 이상설의 업적은 다 음 여덟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을사늑약 체결을 끝까지 막고 자, 고종에게 '순사직'하여 조약을 파기하고 오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둘째,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여 최초의 신학문 민족교육 기관인 서전서숙을 만들고 신학문과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셋째, 고종의 밀지를 받고 제2회 민족병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되어 건너가,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세계 인문인들을 상대로 일제의 만행과 한 국인의 독립의지를 밝혔으며 미주에서 애국동지대표회의와 국민회를 조직하였다. 넷째, 13도의군을 편성

하고 무력을 통해 국권회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독립운동단체 성명회를 조직하고 8,624명의 서명을 받아 성명회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여섯째, 한인 독립운동권 연합회를 창설하였다. 일곱째, 국치 후, 상하이 임시정부보다 5년 앞선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 수립하고 정통명에 선임되었다. 여덟째, 신한혁명당을 창당하고 본부장에 추대되어 마지막까지 국권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1906년 헤이그 특사로 망명한 이후, 이상설은 10여 년간 계속된 망명 생활과 치열한 항일 독립투쟁으로 병을 얻게 된다. 1916년 초, 이상설은 붉은 선혈을 토해내며 병석에 누이고 말았다. 결국 이상설은 1917년 3월, 러시아 니콜라스크의 한 교포의 집에서 순국하고 만다. 가족들과 몇몇 동지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다녔다. 둘째,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여 최초의 신학문 민족교육 기관인 서전서숙을 만들고 신학문과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셋째, 고종의 밀지를 받고 제2회 민족병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되어 건너가,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세계 인문인들을 상대로 일제의 만행과 한 국인의 독립의지를 밝혔으며 미주에서 애국동지대표회의와 국민회를 조직하였다. 넷째, 13도의군을 편성

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이는 나라가 형태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선생은 독립운동과 역사지 키기를 일체화하면서, 역사란 곧 '국백(國魄)'과 '국혼(國魂)'의 기록이라 역설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소외되는 반면, 친일파의 후손들은 나라를 팔아 모은 그들의 부를 세습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의 정도(正道)를 가늠할 수 있는 교과서 속 역사는, 정통사가 아닌 식민주근대화론을 공인하고 친일파들의 죄를 사해 주는 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만약 이상설이 그토록 일찍 순국하지 않고 해방정국에서 활동했다면, 오늘날 이런 혼돈의 세상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보재 이상설의 신념과 사상은 늘 바뀔 길 없이 있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정의가 뒷받치는 어지러운 시대에 처해 있다. 지금이야말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옹호하여 국권회복투쟁에 나서 치열하게 해외를 떠돌며 싸웠던 이상설의 바른 정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보재 이상설의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며 그의 정신이, 그의 삶이 현재에 오롯이 살아 숨쉬기를 바란다.

사설

행정기관 '갑질' 사라져야

앞으로 행정기관이 인허가나 신고 수리를 범에 정해진 기간 내 처리는커녕 연장통보도 하지 않는 등 능징을 부리며 자력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니 기대가 크다.

정부가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76개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시행된다.

76개 법률 개정안은 196건의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196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기관이 법정기간내 처리하지 않거나 연장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총 155건으로, 인허가 간주 47건, 협의 간주 11

건, 수리간주 97건이다.

또 법에 처리기간을 신설하는 인허가 투명화'안건이 5건,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해야 함을 명시하는 수리 명확'안건이 36건이다. 예컨대 수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 관련 행정청이 처리 기간 2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처리 기간 연장도 통보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정기간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가 R&D 연속성 훼손해선 안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은 역대 정부 교체 때마다 혼역을 겪었다. 해당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철학, 국가 산업 현주소에 따라 다양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R&D 정책의 유형은 다양하다. 우선 △한 과제에 대규모로 투자해서 어려운 과제의 성공률을 높이는 유형 △여러 과제에 분산 투자해서 연구 과제 수혜자를 늘리는 유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장단점이 있다. 과제별 대규모 투자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 쉽지만 분명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과제별 분산 투자는 특혜 시비는 적지만 성과보다 나뉘 주기식이라는 비난이 따른다.

또 △장장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는 투자 유형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한 장기 투자 유형이 있다. 이 또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장단점이 있어 쉽게 가치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정책은 점검하고 보완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정책 방향 수정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R&D 정책은 다

음 정부에서는 꼭 손봐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정부도 R&D 정책을 재검토한다. 유사·중복 R&D를 탈락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관행으로 이뤄진 R&D투자를 통폐합하거나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전 권력의 미래 성장 동력 투자를 중단하기보다 기왕에 투자된 것이 잘 매듭지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 역시 R&D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유를 들어 정책을 수정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추진하던 R&D 과제 중단은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단 몇 줄로 돼 있는 과제 제목에 메스를 가하는 일이지만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 혁신 아이디어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마다 단기 R&D 과제가 도출된다. 목표로 한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 R&D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

기고



최일승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시스템과장

4차 산업혁명시대, 인터넷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인터넷은 한국통신이 1994년 우리나라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선보인 후,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됐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3세 이상의 우리 국민 883%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 시간은 일주일 평균 143시간, 하루 평균 2시간에 달하고 있다. 특허청도 지난 1999년 세계 최초

발명가의 특허길잡이, 특허로

로 온라인 특허출원 서비스 '특허로(http://www.patent.go.kr)'를 개통했다. '특허로' 개통으로 민원인들이 특허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던 불편함이 해소됐다. 또 출원, 심사, 등록, 심판, 공보발간 등 특허행정 업무 전반을 자동화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성과들로 '특허로'를 이용한 온라인 특허출원 비율은 지난해 97%에 이른다. 특허청은 '특허로' 서비스를 도입한 후에도 국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2000년엔 특허 수수료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개시했고, 2005년엔 PCI결제출원을 인터넷으로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설했다. 또 24시간 무중단 온라인 출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출원에 따른 수수료 감면효과도 제공하는 등 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국내 출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왔다. '특허로'는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로'에서 온

라인 제증명서류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허법에서 정한 8종 서류에 대한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수행하면 발급 수수료가 무료다. 특허청에서 보관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자료 복사 신청도 가능하다.

공개문서는 누구나 신청해 받아 볼 수 있다. 온라인 제증명서비스는 지난해 이용건수가 104만여 건에 이르는 등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아울러 특허보관함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허고객은 '특허로'에 접속하면 본인이 제출한 사건정보와 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1개월 이내 처리할 업무도 확인할 수 있다. 등 록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 등록안내서 수신함도 제공한다.

특허청의 이러한 노력들로 '특허로'는 특허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13년 한국생산성분부의 조사결과 특허청의 정보시스템으로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5000억 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온라인 서비스의 개선 노력에 민원인들의 비용절감, 공보 비용 절감효과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변화하는 IT환경에 대응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웹 브라우저환경에서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있다. 특허명세서 한글, MS워드로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상용워드파일을 국제표준 포맷으로 자동변환해주는 프로 그램도 개발 중이다. 초보 출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인터페이스도 개선하고 있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온라인 출원 서비스의 재설계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허로'가 발명가들의 특허길잡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고



권순희

충남동부보훈지청장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이다. 경술국치일인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탄조약이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기까지 일제는 한반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무수히 수탈해 갔다.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인원만도 780만이라고 하나 광복이후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정확한 수탈 규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이다. 우리는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에 대한 규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 왜 조선이 망국의 길을 걸어 갔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그를 통해 얻는 역사적 교훈을 찾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경술국치일에 새겨보는 교훈

이에 필자는 경술국치일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자 문헌을 찾던 중 '망치차오,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라는 책이 눈에 띄었다. 망치차오는 '조선망국사략'의 저자로 유명한 중국의 사상가, 교육자, 정치가이다. 그는 조선망국의 원인을 분석하여 중국을 위한 교훈으로 삼고 자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이 책으로 출간된 것이다. 망치차오는 이 책에서 조선이 망국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석하며 나라의 멸망이 너무 쉬움을 탄식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10년 8월 29일, 한국 황제는 한국에 대한 일제의 통치권을 일본국 황제에게 양여하는 등의 8개 조 조항으로 된 병탄조약을 선포했다. 이 조약이 선포된 날 일본은 긴급적령을 내려 한국 국호를 없애고 지역 명칭을 조선이라고 했다.

'조선은 망하게 한 자는 처음에 중국인이었고 이어서 러시아인이었고, 끝은 일본이다. 그렇기 때문 중·러·일인이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스스로 망한 것이다.'라고 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한국황제(여기서는 '고종'을 말한다)는 역대 망국군주의 악덕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다. 경건이 없이 관리를 두는 것은 국사를 다스리기 위함인데, 조선에서 관리를 두는 것은 오직 직접 없는 사람들을 봉양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들은 사리에 어두워 세계의 대세를 몰랐고 정치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으며 또 논의하지도 않았다. 배운 바를 빌려 관직을 구하는 도구로만 삼았다.

여기서 망치차오가 망국의 원인으로 지적한 핵심은 '군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잊고 오로지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국민 모두가 국가를 위한 본분을 다 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

한 곳에 처하며, 교만하고 방탕하여 일하지 않고, 오직 벼슬하는 것을 유일한 직업으로 삼았다. 다른 나라에서 관리를 두는 것은 국사를 다스리기 위함인데, 조선에서 관리를 두는 것은 오직 직접 없는 사람들을 봉양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들은 사리에 어두워 세계의 대세를 몰랐고 정치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으며 또 논의하지도 않았다. 배운 바를 빌려 관직을 구하는 도구로만 삼았다.

경술국치일에 새겨보는 교훈

청렴, 국가 존립의 문제

기고



한영은

대전지방보훈청 주무관

였으며, 매년 발표되는 각종 청렴지표에 의하면 국가청렴도가 높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게 나온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국가청렴도 또한 높다. 반면 이라크, 시리아 등 국가청렴도가 낮은 국가들은 독재와 내전 등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생활이 어려운 정도로 낮다.

국가청렴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꼭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회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고, 신뢰를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사회활동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한 사회, 비리와 부패가 적은 사회는 당연히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대전지방보훈청에서는 반부패 청렴서약 결의 및 청렴 사이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업무와 관련된 고객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불가피한 동행 식사 시 공개된 장소인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식권제도를 운영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보훈공직자들이 모여 시민들에게 신뢰와 신망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청렴은 수병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병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하였다. 보훈공직자들은 선의 근원이며 덕의 근본인 청렴사상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진정한 청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부패를 스스로 부끄러워 할 줄 알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동하고 청렴만이 국민의 공복대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모두가 공순수범하며 맑은바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충족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공이 "부득이하여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릴까요?"라고 하자 공자는 "군비를 버린다."라고 하였다. 자공이 "부득이하여 한 가지를 버린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릴까요?"라고 하자 공자는 "식량을 버린다. 옛날부터 누구에나 다 죽음은 있었지만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공직자의 청렴은 공직윤리 차원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으며, 부패한 국가는 국제경쟁사회에서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7% 유지될 때 경제성장률은 1.4% 상승한다고 하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짧은생각·바른신문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인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내 042)538-1602	광고신청내 042)538-1603	구독료 월 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선서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망설이지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 하나.** 우리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주 관 |

